

SBS magazine

www.sbs.co.kr

커버스토리 <매직> 강동원

특집 SBS 아테네올림픽 방송 결산

새 드라마 특별기획 <매직>

드라마스페셜 <남자가 사랑할 때>

통편 200회 맞은 <도전! 1000곡>

09 + 2004 + September + Vol.154

8



14



20



30




- 8** 특집 / SBS 아테네올림픽방송 결산
SBS, 스포츠 방송의 역사 새로 쓰다!
- 14** 특별기획 <매직>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술...
- 20** 드라마스페셜 <남자가 사랑할 때>
“엇갈리고 비껴가도 사랑! 너를 놓지 않겠어”
- 26** 한가위 특집드라마
<광식의 노래> & <4명의 원수들>
- 30** 200회 맞은 <도전! 1000곡>
일요일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프로그램
- 34** 화제의 코너 / <일요일이 좋다>의 ‘대결! 반전드라마’
재치있는 반전, 유쾌한 두뇌게임
- 36** 커버스토리 / <매직> 강동원
얼음과 불꽃, 섬세함 속에 섞여들다
- 40** 스포트라이트 / <장길산>의 유수영
여린듯 강렬한, 냉정한듯 따뜻한 눈빛
- 42** 500회 맞은 파워FM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자, 우리 모두 현우를 사랑합니다!”
-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색시하게
- 48** 김수현의 공연산책
이 어린 거장의 돋보이는 철학적 사유
- 50** 은지향의 음악종경
가을을 맞는 나만의 컴필레이션
- 52** 맛있는 리서치
여름동안 지친 심신, 먹어서 달래보자
- 54** 아주 특별한 여행
천탐천불의 전설 고이 간직한 평화로운 고장, 화순
- 57**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8** SBS 골프채널 / 생방송 <SBS 골프아카데미>
시청자가 원하는 골프레슨, 라이브로 생생하게!
- 60**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3** 방송과 영화의 만남
<귀신이 산다>
- 64** TV & 라디오 편성표
9월의 SBS 주간 편성
- 67** 9월의 SBS 영화
한가위 특선 대작 세 편
- 68** SBS 소식
<파리의 연인> DVD 출시 & 엘튼 존 내한공연

월간 (SBS 매거진) 2004년 9월호(통권 154호)

· 발행처 | 주식회사 SBS(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 대표전화 02-2061-0006) · 발행일 | 2004년 9월 1일 · 발행 및 편집인 | 송도균 · 주간 | 김재백 · 부주간 | 배성례
· 기획 | 최애라 · 신선화 · 사진 | 서창식 · 조광희 · 김연식 · 편집 및 제작 | 보빙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4-13 · 전화 02-548-0301) · 출력 | G애드 · 인쇄 | 우성프린팅(031-906-6274)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주식회사 SBS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축구 중계 1위’,
‘올림픽 응원전의 메카’로 확실한 자리매김
SBS, 아테네올림픽 통해



근대올림픽의 발상지에서 108년만에 다시 열린 2004 아테네올림픽. SBS에게는 아테네가 그 이상의 의미로 기록될 것이다. 축구 등 주요 올림픽 종목 중계방송에서 SBS가 당당히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스포츠 방송의 새로운 명가’로 자리잡은 것이다. SBS는 이번 아테네 올림픽을 통해 ‘1등 방송 최고 방송’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앞으로 SBS 스포츠의 힘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다.



Athens



스포츠 방송의 역사 새로 쓰다!

2004

뛰어난 발상, 기획의 승리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 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SBS는 지난 8월 12일 올림픽 축구 본선 조별 예선 첫 경기인 대 그리스전에서 방송 3사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멕시코, 말리, 파라과이와의 경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시청률 1위를 지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첫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남자 유도, 양궁 남녀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 남자 탁구 결승전 등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중계방송에서도 SBS는 대등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바 있는 국민레슬러 심권호 씨가 해설위원으로 활약한 레슬링 중계는 그레코로만형 60kg 결승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이 경기를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심권호 어록' 까지 탄생시키며 커다란 인기를 모았다.

특히 경쟁사에 확실한 우위를 점한 이번 SBS 축구 중계는 SBS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전략 속에서 준비된 것으로, SBS 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 심지어 경쟁사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큼 뛰어난 발상이 돋보인 '기획의 승리'였다.

확실한 차별화에 성공 축구 중계에 앞서 SBS 목동 신사옥 로비를 응원 스튜디오로 활용, 전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은 SBS만의 뛰어난 기획이었다. 전문 MC인 임성훈 씨와 '축구전문가'로 이름난 장원재 송실대 교수를 진행자로 기용해 SBS 본사 로비에서의 심야 응원전을 유도하고, 아테네 현지와 선수 가족, 광희문 응원 현장 등을 긴밀히 연결한 구성 등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였다.

SBS 사옥을 이용한 이런 독창적인 응원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자 급기야 타 방송사에서도 올림픽 기간 중 뒤늦게 부랴부랴 똑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로써 SBS는 '축구 중계 1위'는 물론, '올림픽 응원의 메카'로 자리잡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SBS는 앞으로도 SBS만이 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스포츠 방송으로 오늘의 명예를 이어나갈 것이다.

SBS는 신사옥 안팎을 전국민의 응원 스튜디오로 활용, 시청률은 물론 방송의 공익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BS 신사옥, 대한민국 축구응원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

SBS 목동 신사옥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대신해 축구 응원의 메카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올림픽 A조 조별 리그 최종전이 열린 8월 18일 새벽, SBS 사옥은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열기로 넘쳐났다. 얼굴에 태극문양을 그려넣거나 태극기를 든 붉은 유니폼 차림의 시민 1천여 명이 로비에 있는 대형 멀티비전으로 축구 중계를 보며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친 것이다.

그리스 전이 있었던 8월 12일, 멕시코전이 벌어졌던 15일에 이어 이 날도 선착순 입장권 1천 장은 금세 동이 나버렸고, 표를 받지 못해 로비 응원에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은 사옥 근처에 모여 자체 응원을 벌이는 등 SBS 사옥 안팎은 온통 축구 열기로 뜨겁기만 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SBS의 축구 중계는 한국 대 그리스전에서 시청률과 점유율 모두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멕시코와 말리 전, 파라과이와의 본선 8강전도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시청 앞 광장과는 달리 SBS 사옥에서의 실내응원은 비나 더위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대형 멀티비전의 설치로 현장감을 살린 것이 시민 응원단을 몰리게 한 요인일 것이다. 시청자들은 물론 많은 방송 전문가들은 이렇듯 국가적인 이벤트를 맞이하여 사옥 개방을 단행한 SBS의 ‘열린 자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들 역시 썰렁한 서울시청 앞 광장과 시민 응원단이 응집해 열기를 내뿜는 SBS 사옥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여주며 ‘목동으로... 축구 응원 메카 이동’을 비중있게 다뤘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도 시민들은 SBS에 고정된 멀티비전 화면으로 중계방송을 보며 열광적인 응원 열기를 이어갔다.





01

방송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빛날 수 없다. SBS가 2004 아테네올림픽을 통해 스포츠 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서울 SBS 사옥에서의 응원 열기에 더해 지구 반대편 그리스까지 날아가 밤낮을 바꿔가며 방송 제작에 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총출동해 최고의 스포츠 방송을 만들어낸 SBS 올림픽 방송 제작진의 아테네 현지 활약상을 사진에 담아보았다.

사진으로 보는
SBS 아테네올림픽 방송
여기는 아테네,
SBS도 함께
달립니다

사진 / 서창식(아테네)



02



03



04



05



06

- 01_ 아테네 현지에서 성화 봉송중인 SBS 윤세영 회장.
- 02_ 물과 불이 어우러져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 03_ 올림픽 선수촌을 방문한 SBS 윤세영 회장.
- 04_ 아테네 현지 캐스터로 맹활약을 보여준 손범규 아나운서.
- 05_ 아테네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에 자리잡은 SBS 부조정실.
- 06_ 아테네 IBC 내의 SBS 스튜디오에서 방송 중인 정성근·이혜승 앵커.
- 07_ 서울 본사와 실시간으로 교감하며 축구중계 시청률 1위를 이끌어낸 송재익·신문선 콤비.
- 08_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 SBS 스포츠국 권종오 기자.
- 09_ 세계 각국에서 온 응원단을 취재하고 있는 <생방송 모닝와이드> 제작팀.



07



08



09

Magical Lovestory | 특별기획 <매직>

극본 / 윤성희

연출 / 홍창욱 · 고경희

출연 / 강동원 · 김효진 · 양진우 · 엄지원 · 서인석 · 강남길 등

방송 / 토 · 일요일 밤 9시 45분



magic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퀸스레 웃음도 나고, 매일 보는 건물도 그 색이 달라보인다. 불현듯 마음 속에 상대방이 떠올랐을 때 꼭 맞춰 걸려오는 전화, 유달리 요게 들리는 그의 발소리 등.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사랑은 분명히 신비스러운 마술이다. 새로 시작한 SBS 특별기획 <매직>은 마술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다.

특별기획 <매직>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술...

극본 / 윤성희
 연출 / 홍창욱 · 고경희
 출연 / 강동원 · 김효진 · 양진우 · 엄지원 · 서인석 · 강남길 등
 방송 / 토 · 일요일 밤 9시 45분

사랑과 마술은 일맥상통 <매직>에선 젊은 네 남녀, 강제 · 선모 · 단영 · 연진이 중심축이다. 제작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마술만큼 적당한 게 있겠느냐”고 설명한다.

주인공 강제(강동원 분)는 야망을 위해 사랑도 친구도 저버리는 냉정하고 비열한 남자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아버지 풍호(강남길 분)를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자라 천성적으로 고독하고 정에 굶주려 있다. 빼앗기 전에는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었던 성장기를 보낸 탓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괴로워하며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역시 고통받는다. 욕망이 가득 차 결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반면 선모(양진우 분)는 마술사인 아버지 대해(서인석 분)와 함께 전국을 유랑하느라 어린 시절부터 끊임 없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늘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과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선모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뼈다해지는 자신을 어쩔 수가 없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는 평생 마술에 미쳐 떠돌아 다니느라 엄마를 병들게 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만든 원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등장한 강제가 아버지에게서 마술을 배우며 친자식인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친밀해지자 깊은 소외감과 묘한 경쟁심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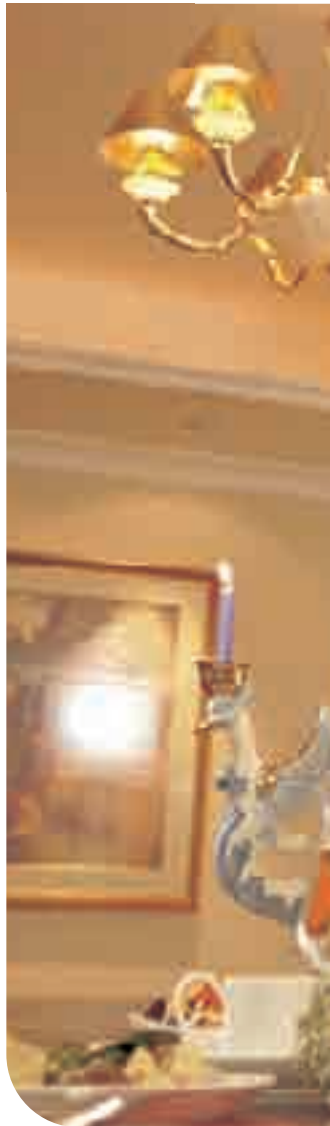
비밀을 간직한 채 대해 밑에서 마술을 함께 배우던 선모와 강제는 친구 도영(이준 분)의 죽음을 계기로 헤어지게 된다. 조폭에게 붙잡힌 강제의 아버지 풍호를 구출하기 위해 도영과 강제가 함께 나섰다가 생긴 사고 때문이었다. 도영은 선모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지만, 선모는 아버지 대해와 함께 마술 공연 무대에 오르기 위해 거절한다. 강제는 풍호가 잡혀있는 창고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풍호를 구하러 뛰어든다. 이때 강제는 조폭에게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도영을 발견한다. 한 명 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 강제는 아버지를 선택하고 도영을 화염 속에 놓아둔 채 도망친다.

돌아온 강제는 마술공연을 방해하려는 깡패들과 시비가 붙어 벌어진 싸움 때문에 도영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모는 도영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 결국 선모는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도영의 마술 동전을 간직한 채 아버지와 강제의 곁을 떠난다.



여주인공 단영(김효진 분)은 죽은 도영의 친동생이다. 다섯 살 때 부잣집에 입양돼 양부(정동환 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다. 입양될 때 헤어져 이제는 얼굴도 희미해져버린 친오빠 도영에 대해 막연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양부가 세상을 떠나자 독립을 결심하고 도영을 찾아 나선다. 단영은 선모가 죽은 도영 대신 오빠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친오빠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늘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캔디 같은 여자다.

단영이 입양된 집의 장녀 연진(엄지원 분)은 어릴 때부터 병약해 늘 주변의 걱정스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





다. 여리고 섬세해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다. 자신과는 반대로 씩씩하고 활기찬 단영을 내신 부러워하며 단영에게 좋은 언니가 돼주고 싶어하지만, 단영을 미워하는 엄마(이응경 분)의 뜻을 거스르고 단영을 지켜줄 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지는 못하다. 이성교제 경험 한 번 없이 주말이면 엄마가 주선해 준 맞선 자리에 나가 인형처럼 앉아있다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강재의 눈에 띄어 그의 야망을 이뤄줄 사냥감이 되고 만다.



다양한 사랑의 방식 이들의 사랑 얘기는 사실 간단하다. 선모는 단영을 좋아하고, 단영은 강재를 좋아하고, 강재는 단영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부잣집 딸인 연진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 인물마다 제각각 다르게 풀어나가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드러난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람, 사랑으로 믿는 사람, 사랑으로 시험하는 사람 ...



또 가족 형태 역시 다양하다.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강재와 선모, 양부모 슬하에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는 단영, 남남이면서도 남매로 살아가게 되는 단영과 선모 등. 이들이 엮어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극본 / 윤성희

연출 / 홍창욱 · 고경희

출연 / 강동원 · 김효진 · 양진우 · 엄지원 · 서인석 · 강남길 등

방송 / 토 · 일요일 밤 9시 45분



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직〉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끝어다 쓰고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도 '출생의 비밀'도 없다. 돈 많고 능력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끔찍이 아끼는 '백마 탄 왕자님'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리는 '나쁜 남자'가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젊음 가득한 캐스팅 홍창욱 PD는 "강재라는 인물을 통해 〈청춘의 덫〉의 이종원,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알랭 들롱 같은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 기대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배우 강동원은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배우다. 최근 개봉한 영화 〈늑대의 유혹〉으로 무서울 정도의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다. 영화 상영 중에 강동원이 나오는 장면에선 여학생들의 비명과 함께 카메라 폰이 터지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갖고 싶은 남자', '여자보다 예쁜 메트로섹슈얼', '함께 휴가 가고 싶은 영화 속 캐릭터' 등 갖은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강동원이 보여주는 악역이라... 쉬 짐작이 가지 않는다. 첫 드라마였던 〈위풍당당 그녀〉에 이어 영화 〈그녀



를 믿지 마세요), <늑대의 유혹> 등에서 늘 부드럽고 착한 역으로 모성 본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

하지만 강동원은 “강제는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는 냉혈한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감춰진 아픔을 알고 나면 미워할 수 없을 것”이라며 편을 든다. 거기에는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보다 이번 작품의 강제 역이 오히려 실제 성격과 비슷하다”며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하고, 건조하고 무뎡뎡한 말투 등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단영 역을 맡은 김효진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얼굴을 비쳤다. 시추에이션 드라마 <우리집> 이후 3년 만이다. “비중있는 역은 처음”이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김효진은 활달하고 밝고 메시에 긍정적인 단영의 모습 그대로다.

재미를 더하는 생활 속 마술 제목이 <매직>이니 만큼 마술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선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술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틈틈이 실제 마술을 보여주지만, 화려한 볼거리 차원은 아니다. 단영의 마음을 풀어주고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한, 생활 속 마술이 등장한다. 마술지도는 신세대 마술사 최현우가 맡았다. 그는 극중 조연으로 잠깐씩 등장하기도 한다.

감초 같은 조연을 맡아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중견배우 서인석·강남길·정동환·이용경 등의 활약상도 기대된다. 신구 연기자들이 조화를 이뤄 만들어 내는 <매직>을 통해 올 가을 우리 마음 속에서 신비한 사랑의 마술이 하나씩 이뤄질 수 있으려나, 사뭇 기대된다.

글/이지연 중앙일보 기자·사진/조광희



Production Note ¹

공동연출 홍창욱·고경희 PD

“남들과 똑같이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매직>의 연출을 맡은 홍창욱, 고경희 PD는 “가벼운 트렌드드라마를 벗어나 다소 무거운 설정을 통해 사랑과 가족의 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나쁜 남자인 주인공을 그 내면의 고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그려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주변에서 왜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강동원에게 나쁜 역을 시키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홍창욱 PD는 “강동원은 차갑고 냉정한 역할도 잘 소화하는 데다 운동신경도 뛰어나 마술도 금방 배운다”며 주인공 자랑이 대단하다. 혹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파리의 연인> 후속 드라마를 맡게 된 데 대한 부담은 없을까. “부담같은 건 없다”는 명쾌한 대답으로 두 사람은 <매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극본 / 김윤정

연출 / 최윤석

출연 / 고수 · 박정아 · 박예진 · 배수빈 · 하재영 · 이보희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9월 30일 첫 방송 예정)



드라마스페셜 <남자가 사랑할 때>

“엇갈리고 비껴가도 사랑!”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 느껴지는 찬란한 사랑의 순간. 슬프게도 그런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 길지 않은 법이다. 대부분의 사랑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한 쪽이 간절히 원하는 순간에 다른 한 쪽이 떠나거나 한 쪽이 놓아주려 하면 한 쪽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곤 하는 것이다. 슬픈 사랑의 엇갈림. 여기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네 남녀의 이야기가 있다. 오는 9월 22일부터 방송되는 SBS 드라마스페셜 <남자가 사랑할 때>다.



“너를 놓지 않겠어”

극본 / 김윤정

연출 / 최윤석

출연 / 고수 · 박정아 · 박예진 · 배수빈 · 정동환 · 이보희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9월 30일 첫 방송 예정)

운명, 첫사랑 한 남자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등학생 지훈(고수 분). 그는 부드럽고 맑은 눈을 가졌다. 어머니가 죽자 지훈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친구인 서태천(하재영 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의 뒤를 따라 간 바닷가 마을의 허름한 권투도장. 그곳에서 환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아름다운 소녀 인혜(박정아 분)를 만난다.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그의 사랑이 시작된다.

한 여자가 있다. 꿈을 좇아 질주하는 상처입은 새 같은 여자. 가난하지만 첼로를 사랑하는 도도하고 총명한 악바리 아가씨다. 그녀를 낳다가 죽었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무능하고 초라한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엔 아픔과 원망이 교차한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데리고 온 서울 남학생 지훈을 만난 뒤 그와 강렬한 첫사랑을 교감한다. 그러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사랑보다 성공을 선택하는 그녀. 그녀에게 가진 것 없이 맑기만 한 지훈은 건너뛰어야 할 진흙탕일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여자. 한 여자의 사랑을 얻고 싶어 욕망의 화신이 되어가는 남자 석현(배수빈 분)이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선 수재에 모범생이었지만 학교 밖에선 일탈을 일삼으며 방황하던 석현은 서울에서 전학온 지훈과 생애 처음으로 진한 우정을 쌓게 된다. 그러나 그와 지훈은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한 남자의 마음에 들어가기로 간절히 소망했던 여자 정우(박예진 분). 경호무술 학원에서 무술을 배우고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자 소매치기를 하며 젊음을 소진한다. 어느 날 서울로 상경한 지훈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가슴에는 항상 다른 여자가 자리잡고 있음을 안다.

한 남자, 문신처럼 사랑을 품다 이야기는 이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키는 운명과 사랑 이야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혜는 첼리스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지훈을 남겨둔 채 홀로 서울행을 택한다. 한편 졸업식 날 서울로 불러올라간 석현은 자신이 호텔재벌인 장회장의 사생아였음을 알게 된다. 석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인혜는 호텔 재벌의 아들로 화려하게 변신한 석현과 재회한다.

지훈은 말없이 사라진 인혜를 찾기 위해 서울을 헤멘다. 그러나 간신히 찾아낸 인혜의 옆에는 오랜 친구 석현이 있다. 지훈은 친구의 사랑이 된 인혜를 멀리 하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접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옆에 등장한 새로운 여자 정우. 지훈은 정우의 손에 이끌려 간 경호무술 학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어찌보면 진부한 사랑 이야기다. 갈팡질팡하는 사랑이 나오고 복잡한 가족사가 등장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한 남자의 마음이다. 제목이 <남자가 사랑할 때>인 만큼 이야기는 한 남자, 지훈의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랑을 잃고 상처를 입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변해가면서도 인혜에 대한 지훈의 사랑은 지겨울 만큼 치열하게 이어진다.

지훈의 등장으로 흔들리는 인혜를 지켜보던 석현은 인혜에게 함께 유학갈 것을 제안하고 들은 유학 길에 오른다. 석현과 함께 떠나버린 인혜에게 배신감을 느낀 지훈. 그런 지훈을 보며 상





실감에 빠진 정우는 부동산 재벌인 엄마 박화영에게 지훈을 데려간다. 절망 속에서 지훈은 박화영(이보희 분)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호텔경영 공부를 하며 새 인생을 준비한다. 그리고 몇 년 후, 결혼을 앞둔 인혜와 석현이 귀국하고 왼손 신경에 이상이 온 인혜가 첼리스트의 꿈을 접고 호텔에 입사하면서 네 사람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다.

변신, 새로운 얼굴 〈남자가 사랑할때〉에는 기대를 품게 하는 젊은 연기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에서 우수에 젖은 눈매에 착하고 여린 감성을 보여줬던 연기자 고수는 이번 드라마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극의 초반부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눈매를 가진 착한 소년의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에게 빼앗기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후 상처입은 남자의 거친 눈빛을 보여준다. 극 초반에 등장하는 권투시합 장면을 찍기 위해 두 달 넘게 체육관을 찾아 권투를 배우고 있다는 고수의 새로운 매력이 기대된다.

인혜 역의 박정아는 시청자들에게 아직은 '가수'로 각인된 인물.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성공을 위해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욕심 많은 여자의 복잡한 내면을 연기해야 한다. 영화 〈마들렌〉에 조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주연급 연기는 처음인 그에게는 힘든 배역일 수도 있다. 박정아가 가진 여성스러우면서도 강한 복합적인 이미지가 인혜와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살펴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다.

지훈을 사랑하는 거친 야생마 같은 여자 정우는 그동안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승부했던 박예진이 맡았다. 정우는 경호무술 학원을 다니다 지훈을 만난 후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중성적인 이미지의 인물이다. 이번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배우고 주 2회 액션스쿨에 나가 액션연기를 지도받고 있는 박예진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



극본 / 김윤정

연출 / 최윤석

출연 / 고수 · 박정아 · 박예진 · 배수빈 · 정동환 · 이보희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9월 30일 첫 방송 예정)

겠다”는 열의에 불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현 역은 시청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신인배우 배수빈이 연기한다. 연출자 최윤석 PD는 우연히 다른 방송사의 단막극에 출연한 그의 모습을 보고 석현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해 바로 그를 캐스팅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짙은 눈매에 조각같은 외모를 가진 배수빈의 등장은 이번 드라마에 또 하나의 기대를 품게 만든다. 그 외에도 이보희, 정동환, 이희도, 김청 등 탄탄한 중견 연기자들이 드라마를 받쳐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볼거리 충만한 사랑 이야기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고 꿈을 키워가는 바닷가와 호텔, 테마파크 등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듯 하다. 극의 초반기 고등학생인 주인공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바닷가를 배경으로 흐르는 첼로의 선율 등은 시청자들의 낭만을 자극한다. 이후 네 남녀가 만나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무대인 호텔과 테마파크 역시 화려하면서도 이국적인 볼거리로 시청자들을 유혹한다. 제작진은 “사랑 이야기 뿐 아니라 주인공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현실감 있게 그려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슬프고 아픈, 어쩌면 비극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 바닷가 마을, 무덤가, 그리고 낡은 첼로..., 이 정도의 힌트만 주도록 하자.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엇갈린 운명과 비껴가는 인연을 끌어안으며 때로는 웃음짓고 때로는 통곡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사랑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글 / 이영민 자유기고가 · 사진 / 김연식





Coffee Break | 최윤석 PD



〈우리들의 천국〉 〈종합병원〉 〈신화〉 〈유리구두〉 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연출했던 최윤석 PD는 엇갈린 운명에 아파하는 남녀들의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감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그는 “한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일 것 같다.

“네 남녀의 엇치는 사랑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밝은 톤으로 풀어보려 한다. 드라마 초반기에 옛날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등은 시청자들에게 아련한 향수와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본다.”

- 배우들의 연기를 평가한다면.

“고수와 박예진은 그동안 어떤 드라마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박정아 역시 어려운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어 ‘가수 출신’이라는 딱지를 금방 뗄 수 있을 것 같다. 석현 역의 배수빈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인인데 이번 드라마의 히든카드라고 생각한다.”

- 왜 〈남자가 사랑할 때〉인가.

“주인공은 여러 인물이지만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지훈(고수 분)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지훈이 사랑을 하고 상처를 입고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한 남자의 사랑이 어디까지 순수하고 송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극본 / 박경아 연출 / 정효
출연 / 김진수 · 이윤성 · 박주아 등
방송 / 한가위 연휴

한가위 특집드라마 <광식의 노래>
평범하지 않은 두 남녀의
평범한 사랑 이야기



제목부터 늘 보는 일일극이나 주말극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광식의 노래>는 2004년 SBS TV 문학상 공모전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그리 평범해 보이지 않는 처지의 두 남녀간 사랑 이야기를 오히려 평범한 시각으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SBS TV를 통해 한가위 특집으로 방송되는 <광식의 노래>는 시청자들의 풍요로운 가을 휴식을 한층 아름답게 만들어 줄 드라마다.

쓸쓸한 남자 외로운 여자 주인공인 광식(김진수 분)은 고아 출신 노총각으로 작은 어촌에서 맨 몸으로 상경한 처지다. 마음은 늘 고향 바다로 향해 있으나 이런 저런 현실 때문에 10여 년 동안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쓸쓸한 뒷모습을 지닌 남자. 한편 여주인공 지영(이윤성 분)은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하반신 장애인으로 동정 어린 주변 시선에 오히려 곳곳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여인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박주아 분)와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신경에 날이 서있다.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작은 트럭 하나로 행상을 다니는 광식이 다가온다. 서로의 힘든 처지에 별다른 편견을 갖지 않았기에 마음을 트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들. 자연스레 서로의 상처를 힐어주고 덮어주면서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간다.

힘든 삶을 사는 고아 출신의 노총각과 장애인 여성의 이런 만남은 언뜻 보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듯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서로의 콤플렉스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사랑의 감정과 믿음을 확인하는... 그렇게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청자들은 가정이나



신체적인 핸디캡과 상관없이 지극히 평범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그만큼 진솔한 사랑이 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가슴에 길게 남을 사랑의 향기 연출을 맡은 정 효 프로듀서는 단순히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길 원했다. 진솔한 사랑의 힘이 어려운 현실의 벽을 뚫고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 것. 이러한 의도는 그들의 사랑에 비극의 굴레가 씌어지는 상황으로 표출된다.

결혼식날 광식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건디기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가슴 아프지만 곧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 자립의 길을 터주고자 하는 광식. 그녀에게 길이 함께 살아갈 고향을 물려주고, 남은 인생길 외롭게 않게 살아가도록 친구도 만들어 준다. 그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는 너무 쉽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요즘 세태에 단순한 눈물과 감동 이상의 진한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다.

〈광식의 노래〉로 처음 자신의 작품을 안방에 선보이게 된 신예 박경아 작가는 사랑을 남기고 죽어가는 광식의 삶이 사랑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삶 보다는 훨씬 의미있고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 작품을 통해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처럼 지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남편 역할은 이미 몇 차례 정극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바 있는 개그맨 김진수가, 장애인 아내 역은 이윤성이 맡아 열연을 펼치고, 지영의 어머니 역은 박주아, 광식의 첫사랑이었으나 그의 주선으로 지영의 영원한 친구로 남는 미순 역은 박현숙이 맡아 훈훈한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간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 역시 가볍게 스치는 오락 프로그램 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눈물 한 번 흠칠 수 있는 드라마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훨씬 좋다. 예술의 효용을 카타르시스에서 찾는다면, 〈광식의 노래〉는 충분히 그 대접을 받을만한 미덕을 갖췄다. 〈광식의 노래〉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지고지순한 사랑의 눈물로 마음을 씻어줄 특별한 한가위 특집이 될 것이다.

글 / 김진희·자유기고가·사진 / 김연석

Interview ¹

정 효 PD

〈임꺽정〉, 〈왕의 여자〉 등 일련의 큰 사극 드라마의 중심에 놓여있던 정 효 프로듀서가 한가위 특집 〈광식의 노래〉로 현대극에 도전한다.

“긴 사극이나 짧은 현대극이나 보는 이에게 강한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면 다 좋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그.

TV 문학상 공모에서 뽑힌 여러 편의 특집 후보작

중에 〈광식의 노래〉를 선택 고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 보는 이들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런 저런 장애를 가졌지만 등장인물들이 모두 맑아보였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주면 시청자들을 더욱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잔잔한 디테일을 담담하게 그려내 오히려 흡인력을 발휘하는 연출 스타일을 새롭게 선보인 그에게 앞으로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드는 맹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그들의 사랑 앞에 시청자들의 가슴이 미어지게 하고 싶다”는 그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극본 / 임선희 연출 / 신유섭
각본 / 임호·김지영 등
방송 / 한가위 연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감동적이되 무겁지 않으면 좋겠고 눈물과 웃음을 함께 주는 드라마, 보고 난 후에 가족들과 주고받을 따뜻한 이야기가 생기는 드라마, 진부하지 않고 색다르면서도 허황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같아서 시간이 아깝지 않은 드라마. 명절엔 그런 드라마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4명의 웬수들>이야말로 이번 한가위에 꼭 봐야 할 드라마다.

아우러지는 사랑 조각보 가족의 한가위 특집드라마 <4명의 웬수들>

새로운 만남으로 치유하는 상처 이혼율이 급증하는 만큼 재혼 가정도 늘고 있다. 헤어짐의 아픔을 새로운 만남으로 덮어보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4명의 웬수들>은 그런 재혼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현실적인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간다. 아이가 들쭉 딸린 이혼남과 이혼녀가 재결합하자마자 겪는 힘겨운 사실들과 흘려야 하는 눈물과 끝없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결국은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랑의 감정까지 아이들을 중심으로 찬찬히 펼쳐 보인다.

“재혼 가정의 문제를 현명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문제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빠 중철 역을 맡은 임호는 이번 작품을 계기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요즘은 부쩍 결혼 생각이 들어서인지 촬영장에서 아역 배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단다.

역시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재결합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다. 부부야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남남이지만, 형제자매는 헤어져도 남남이 아니기에 재결합 가정에선 인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새 아빠의 호적에 동거인으로 밖에 올려지지 못하는 성이 다른 아이들, 같은 반의 여자 친구를 어느 날 갑자기

기 누나라고 불러야 할 때 다른 친구들의 시선,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자식을 먼저 꺼안게 되는 새 엄마, 제 자식 이라면 한 대 쥐어박고 말았을 일이 괜한 오해로 부풀게 되는 상황들... 그러나 그 아픈 가슴들도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치유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재혼가정의 이상향을 보여주고, 더 이상 재혼가정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외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주제의식이 암암리에 표출된다.

좌충우돌, 눈물 찼끔, 사랑스런 웬수들 태권도장의 관장인 종철(임호 분)은 이혼 후, 아홉 살과 세 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며 산다. 어느 날 아들 우진의 급식을 위해 학교에 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인 영주(김지영 분)와 마주친다. 알고 보니 영주 또한 열한 살 송이와 아홉 살 별, 두 딸을 둔 이혼녀.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다보니 마트에서도 마주치고, 우진과 별이 한 반이다 보니 학부모 모임에도 동석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종철은 영주에게 청혼을 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오는 종철에게 마음이 끌린 영주도 재혼을 결심, 두 가정 여섯 식구는 한 집에 살게 된다. 그러나 역시 또래의 아이들 넷이 남매지간이 되려니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다.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만 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 대해 무엇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김지영은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맡다 보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더 절실하게 느낀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곧 웃음으로 승화되는 법. 그들의 눈물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흘러 흘러 모여든다.



4명의 웬수들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결국은 그 4명의 웬수들이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힘들어서 지쳐가던 종철과 영주까지 다시 묶어주는 것이 4명의 웬수들이다 보니 미워 죽겠는 웬수가 아니라 사랑스러워 죽겠는 웬수들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다. 서로를 향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 새 가족을 보며 우리도 식구들을 향해 마음 안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한번쯤 꺼내볼 일이다, 사랑한다고...

글/정영_시인·사진 /서창석

Interview |

신윤섭 PD



2002년에 한가위 특집극 <황금 연못>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그렸던 신윤섭 PD는 작년엔 일일드라마 <연인>으로 사랑과 결혼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임호와 김지영이 워낙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어서, 따뜻함을 추구하는 신윤섭 PD의 의도와는 맞지만 두 배우가 미혼이고 아이가 없는 신혼이다 보니 걱정이 됐는데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다며 기쁨을 숨기지 못한다.

더더욱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연기가 맛을 더하고 있기 때문. 밤샘으로 인한 피곤이 가실 정도라니 한껏 기대해 봐도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따뜻한 작품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것은,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일 것이다.

서는 지금껏 해왔던 멜로물과는 달리 더 넓고 더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드라마를 시작으로 자신의 색깔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단다.

“재혼은 사실 무거운 소재일 수 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좀 더 가볍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다 보고 냈을 땐 감동적인 드라마였으면 하죠.”

일요일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2000년 10월 22일. '음정 박자는 무시! 오로지 가사만을 심사합니다!' 라는 재미있는 원칙 아래 탄생한 <도전! 1000곡>이 온 국민의 사랑 속에 어느새 200회를 넘어섰다. <도전! 1000곡> 덕분에 일요일 늦잠이 없어졌다거나, 온 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보느라 아침 식사를 함께 한다는 시청자 편지가 쇄도하는 등, 200회가 이어져오는 동안 변치않은 시청자들의 사랑 덕분에 <도전! 1000곡>은 대통령도 좋아한다는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국민 프로그램



스타들의 노래방 합숙훈련 그동안 <도전! 1000곡>에는 1,000여 명의 스타들이 출연해 숨겨진 춤 솜씨, 남다른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프로그램을 빛내주었다.

<도전! 1000곡> 출연이 결정되면 연예인들은 그 날부터 노래방으로 직행해 노래연습에 들어간다. 본인 뿐 아니라 매니저, 가족, 소속사 사무실 식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총동원돼 노래방 합숙작전에 돌입하는 것. 이리다 보니 출연할 때가 되면 모두가 노래 박사가 되어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연습들을 하다 보니 노래방에서 출연자끼리 마주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게다가 “<도전! 1000곡> 노래 연습하러 왔다”고 살짝 얘기하면 노래방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린다.

‘땡’과 ‘딩동댕’ 사이에서 울고 웃는 출연자들 ‘땡’ 하는 실로폰 소리에 울고, ‘딩동댕’ 하는 실로폰 소리에 웃는 출연자들. ‘딩동댕’ 소리엔 모두 환호하지만 ‘땡’ 소리에 반응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땡~ 소리가 울리자 노래방 책을 꺼내가며 “연습 많이 했는데 한번만 봐달라”던 그룹 UN, 그리고 가끔 가수가 본인의 노래를 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그룹인 경우 다른 멤버가 부른 부분의 노래 가사를 몰라 헤매는 경우도 있고, 라이브가 되지 않는 가수들은 본인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옥타브를 소화해내지 못해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물론! 이 내용들은 편집했기 때문에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다).

열심히 연습해오는 출연자들이 있는 반면, 노래 연습은 뒤로 하고 몇 주 전부터 방송을 보며 노래 번호를 외워오는 출연자들도 있다. 그러나 매주 번호와 선곡은 바뀐다…

꼭 나올 것 같은 노래(최신 히트곡)로 커닝 페이지를 만들어오는 출연자도 있다. 운 좋게 골라온 노래가 나왔지만 힐끔 힐끔 커닝하다가 제작진에게 들키 결국 탈락! 또 어떤 그룹은 트로트, 발라드, 댄스곡들을 분야별로 암기해 노래부르는 멤버 뒤에서 살짝 가르쳐주다 탈락되었다. 이렇게 <도전! 1000곡> 녹화장에는 ‘웃기는’, 또는 ‘웃어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왕중왕의 영광과 황제의 영예 가요계 대 선배인 가수 김수희 씨는 오랜 무대 경력에도 불구하고, <도전! 1000곡> 녹화에 들어가기 전 청심환을 먹는 약한(?) 모습을 보여 후배들을 더욱 긴장시키기도 했다. 또 양희은 씨, 하춘화 씨는 정말 대단한 연습량으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줘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정작 양희은 씨는 왕중왕전을 앞두고, 하춘화 씨는 황제전을 앞두고 <도전! 1000곡> 연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

연출 / 윤대중
 진행 / 정재환 · 이유진
 방송 / 일요일 아침 8시 40분



에 출연을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몇 번의 출연 끝에 우승을 차지한 가수 유채영 씨는 “유채영 우승!” 소리에 눈물을 흘리느라 우승소감을 말하지 못했다. 그를 보며 얼마나 이 무대에서의 ‘우승’이 어려운 것인가를 제작진도 실감했다.

‘황제계보’를 이어간다! <도전! 1000곡>은 매회 1팀의 우승자를 선발해 8팀의 우승자가 왕중왕전을 펼친다. 그리고 다시 왕중왕 8팀이 모여 황제전을 치른다.

그렇게 탄생한 1대 황제가 전 국민이 인정한 노래박사, 춤박사 노현희 씨다. 그녀는 “지금 당장 불러보라 해도 500곡은 족히 된다”고 할 정도로 화려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진정한 초대 황제임을 과시했다.

노현희에 이은 2대 황제 신세대 스타 <코요태>의 신지는 노래방 책을 꺼안고 다니기를 몇 달, 드디어 2대 황제 자리에 올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도전! 1000곡>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신지의 우승을 축하해주었다

3대 황제를 꿈꾸는 왕중왕들은 텔런트 정호근, 가요계의 큰 언니 최진희, 언제나 웃음을 몰고 다니는 개그맨 켈투, 카리스마 대마왕 가수 박상민, 그리고 200회 왕중왕 특집에서 탄생한 가수 서문탁이다. 과연 3대 황제로는 누가 등극할 것인가?

대기실의 시험공부? 노래공부! 녹화장을 찾는 출연자들의 손엔 노트, 노래 가사책, CD 플레이어는 필수다.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시험공부를 하는 양 주절주절 노래를 외우고, 불러보고, 볼펜을 들어 줄을 그어가며 연습하거나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암기과목 외우듯 가사를 외운다.

<도전! 1000곡>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걸로도 유명세를 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단연 은방울 자매였다. 원로가수인 은방울 자매는 캔의 <내 생애 봄날은> 부터 핑클의 <나의 왕자님>, 이기찬의 <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래를 멋지게 소화해내 제작진,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감동시키며 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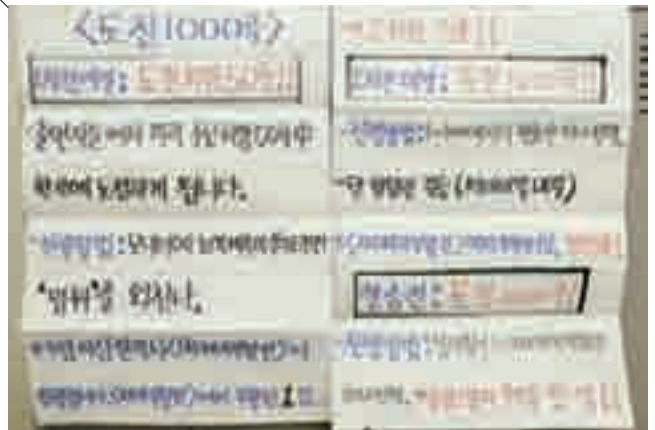
또 가수 원미연의 경우, 녹화 도중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어 초조한 마음으로 녹화를 하게 됐다. 2대 황제전 녹화인 만큼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는 무대에 섰고, 우연히도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선곡됐다. 노래 첫 가사인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가~’를 부르다 그대로 무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은 녹화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수 섭외 어려운 가요 프로그램 흔히들 <도전! 1000곡>은 가수 섭외가 쉬울 것이라거나 가수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도전! 1000곡>은 의외로 가수 섭외가 어렵다. 가수들의 경우 본인의 노래 실력이 탄로날까 두려워, 자기 노래만 잘하고 남의 노래는 잘 못한다고 알려질까봐 무서워 한사코 출연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은 무대 위에서 혹시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며 신중하게 번호를 선택하고 노래를 부른다.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긴 출연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더욱 열심히 하고 이미 일찍 떨어져 아무 기회도 없는 출연자들은, 서로를 응원해 가며 우승의 현장을 지켜봐준다. 녹화가 길어지는 경우 고맙게도 분위기를 띄워 녹화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출연자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임백천 씨는 출연만으로도 놀라고 반가웠는데 무대를 중흥무진하며 응원전을 펼치는 그의 모습은 참 멋지고 고마웠다. 이렇게 <도전! 1000곡>은 승패에 상관없이 모두가 웃을수 있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최고의 녹화 분위기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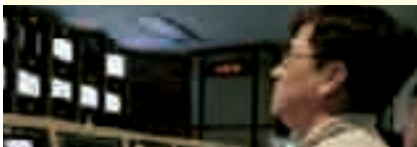
도전은 계속된다 대한민국엔 수많은 노래들이 하루에도 몇십 곡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무대를 빛내주고, 제작진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또 변치않는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시청자들이 있는 한, 일요일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프로그램 <도전! 1000곡>의 행진은 300회, 1천회까지도 멈추지 않고 쭉~ 계속될 것이다.

글 / 한소리<도전! 1000곡> 작가· 사진 / 김연석



Thanks Message

윤대중 PD



연예인들에게 섭외 전화를 했을 때 부담을 많이 느껴서 담당 PD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해 열심히 무대를 빛내주는 모든 연예인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1회전에서 탈락한 출연자들에게 특별무대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어려워 그 또한 미안할 뿐이다.

앞으로 섭외 전화를 할때 출연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MC 정재환

음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기에 <도전! 1000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0시간 가량의 녹화 내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후배들을 다독거리는 강부자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배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음치, 박치인 출연자가 가사만 열심히 외워와서 도전자들 사이에서 곳곳하게 버틸 때, 바로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도전! 1000곡>만의 재미 포인트이며 모미라고 생각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 1000곡>을 아끼고 지켜봐 주시기에 늘 편안하게 즐겁고 신나게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다.



MC 이유진

노래 잘하는 출연자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폭 빠져드는 걸 느낀다. 소찬휘, 진주, BMK 등과 같이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과 녹화를 한 후, 또 꼬마가수 JR 등의 맹활약을 보고 나면 집으로 가는 길에 앨범을 구입, 나도 모르게 그들의 노래를 찾게 된다.

<도전! 1000곡>을 보며 노래에 흠뻑 빠질 수 있다는 것, 노래를 즐기며 흥얼거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도전! 1000곡>의 힘이다.

연출 / 남승용

각본 / 유재석 · 정준하 · 소유진 · 에릭 · 한지혜

방송 / 일요일 저녁 6시

〈일요일이 좋다〉의 백미 ‘대결! 반전 드라마’

재치있는 반전,

유쾌한 두뇌게임

반전이 기다리는 코믹드라마 〈일요일이 좋다〉의 변신을 지휘한 연출자는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헤이헤이〉로 ‘코믹 단막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였던 남승용 PD. 그는 “예전에 했던 ‘웃자웃자’ 등의 미니시트콤 형식에서 더 욕심내 드라마를 만들어봤다. 주종목이긴 했지만 기존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를 고려하면 모험이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렇게 빠른 반응을 얻어낼 줄 몰랐다. 이 여세를 몰아 드라마의 완성도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재미있는 단편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대결! 반전드라마’는 코믹터치가 가미되어 있지만, 본령은 드라마에 두고 있다. 그래서 출연자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극적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의 ‘반전’이 바로 일요일 저녁 ‘대결! 반전 드라마’를 챙겨 보게 만드는 ‘매력’인 것이다.

코미디와 정극의 즐거운 대결 ‘대결! 반전드라마’는 일단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드라마를 진행한다. 유재석, 정준하, 소유진이 한 팀이 되어 코미디극을, 반대편에선 가수 에릭과 한지혜가 팀을 이루어 정통드라마를 선보인다. 이 두 드라마는 형식과 테마는 서로 다르지만 결말에 기상천외한 반전을 숨기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각기 기상천외한 반전으로 무장한 두 편의 드라마를 시청한 후, 인터넷 시청자 투표로 충격적이고 예기치 못한 반전을 선사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반전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기존의 오락프로그램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다. 각각의 드라마가 숨겨놓았을 법한 반전을 유추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기가 막힌 반전을 선보인 팀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즐거움이다.



감동과 웃음을 버무려서 ‘최고의 스타가 직접 만들어 가는 ‘대결! 반전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반전의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초호화 캐스팅으로 시청자들을 끌어 당기고 있다. 정극팀은 〈불새〉로 연기력과 스타성을 검증받은 에릭과 〈낭랑 18세〉〈섬마을 선생님〉으로 주가를 높인 한지혜가 열연한다.

한 편의 깔끔한 단막극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드라마의 완성도나 에릭과 한지혜의 안정적인 연기와 조화가 돋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부잣집 귀공자와 반항아적인 모습으로 각인됐던 에릭

<일요일이 좋다>가 지난 8월부터 새 코너를 선보이며 새롭게 단장했다. 그중에서도 '드라마와 토크의 결합'이라는 신선한 기획으로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코너 '대결! 반전드라마'는 연예인들의 게임 버라이어티쇼가 주류를 이루던 기존의 오락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1화 <신혼부부 납치사건>에서의 정준하의 스토커 연기는 <장길산>의 '갑송' 역을 비롯해 그간 정극으로 닦아온 정준하의 물 오른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코믹하지만 애잔한 여운을 주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게시판 가득 채웠다. 매회 일취월장하는 유재석의 연기를 보는 즐거움도 각별하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내면(?)연기까지 펼칠 예정이라니 기대해 볼만하다. 또한 오는 9월 말부터는 에릭의 뒤를 이어 가수 비가 정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이외에도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

시청자와의 두뇌게임 생각없이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대결! 반전드라마'의 진정한 매력이다. 한 가지 테마에 열 두 가지 이상의 결말과 반전을 두고 고민하는 제작진과 시청자들의 일종의 두뇌게임인 셈이다. 드라마의 반전이 일반적 사고의 맥락에서 벗어난 극도로 기상천외한 것이어도, 반대로 지극히 안이한 결말이어도 시청자들을 끌어안을 수 없다. 반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반전드라마의 성공의 관건인 셈. 일단 제작진은 열 사람 가운데 다섯 사람이 예측가능한 반전을 목표삼아제작하고 있다.

'대결! 반전드라마'는 초반의 성공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반전과 더불어, 미스터리, 영화 패러디 등 다양한 장르의 옴니버스식 구성을 선보이며 시청자들과의 더욱 치열한 두뇌 게임을 이어갈 참이다. 일요일 저녁, 재치있는 반전과 유쾌한 두뇌 게임을 한번 즐겨보자!

글 / 위지영 자유기고가 · 사진 / 조광희

은 1화 < 스위트룸 >에서의 어수룩한 은행원과 3화 < 그날 이후 >에서의 귀신역할 등 가히 획기적인 변신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정극팀과 대결구도를 보이는 코미디의 열연 또한 대단하다. 개그계의 자존심 유재석, 정준하의 콤플렉스에 홍일점 소유진이 벌이는 팀워크는 오락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고스란히 살려 놓는다. 놀랄만한 반전과 더불어 정극팀이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준다면, 이에 맞선 코미디팀은 포복절도할 웃음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동원은 섬세한 사람이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우기지만, 본인은 “너무 평범해서 큰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섬세한 감각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무작정 편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 닥치는대로 아무렇게나 묻는 질문에 또박또박 선명한 것을 내놓고, 짧은 대답을 내놓고는 다시 세세하게 부연 설명을 할 줄 아는, 그의 그런 섬세함은 배우의 밑천이자 무게일 것이다. 섬세함으로 열려있는 배우, 그의 섬세함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 / 이병률_시인 · 사진 / 조광희

얼음과 불꽃,

섬세함 속에 섞여들다

〈매직〉 강 동 원



색깔있는 남자 “슬픔이 있는 드라마라는 점이 맘에 들었어요. 물론 악역이라서 못되고 냉정한 면을 많이 보여주겠지만 그 이면에 슬픔이 많은 인물이라는 점이 저를 끌어당긴 것 같아요. 마음 속에 불꽃도 있고 얼음도 있는 사람이 차감제입니다. 로맨티스트와 폭군을 오가는 복합적인 성격도 매력적이라 해보고 싶었구요. 기존의 악역의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전혀 다르게 연기해 보자는 게 제가 정해 놓은 숙제이지요.”

새롭게 선보이는 마술 드라마, SBS 특별기획 <매직>에서 고독한 남자 차감제 역을 맡은 강동원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 요 며칠 성격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떠다. 그럼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 묻자,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니, 이내 손을 내저으며 “부드러운 남자이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은 어떤 색깔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한 가지 색으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씨에는 벌써 여러 색깔이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이 많은 색깔들 가운데 어떤 색을 붙잡게 될까?

스타일과 분위기 강동원은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다. 모델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가 흉내낼 이상형의 ‘모델’은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 잠깐 ‘에드워드 노튼’이나 ‘뱃 데이먼’의 그것을 닮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지만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곧 재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옷이 그러하다. 절대 유행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정해 놓은 옷에 대한 기준이다.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것, 독특한 것,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 하지만 어울리는 것. 그의 몸은 이런 고집스런 질감들로 익숙해져 있다.

독특한 질감의 천. 누구나 강동원을 만나면 한순간 그런 느낌에 잠기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만져야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천 조각, 자르면 자를수록 달라지는 천 조각. 그의 이 묘한 분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는 보통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꿈꾸는 소년 강동원은 경남 거창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열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엔 없는 것이 없었다. 불타는 청춘의 열기가 있었고 피짜들의 장난스러움이 있었고 경쟁과 이상,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황당함과 생활이 한 곳에서 뒹굴고 있었다.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는 그 시절을 '전환기' 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학창시절, 그는 선생님들한테 '꿈꾸는 소년' 으로 불렸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번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여섯 살 때 큰 상처로 찾아왔다. 소꿉놀이를 하다가 낮에 손을 베어 손가락 세 개를 한꺼번에 잃을 뻔했던 것. 아직도 그의 손바닥에는 그때의 지독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찬란했던 동거의 기억과 아찔했던 실수의 기억. 그는 그 두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바뀌어지고, 모드 변환된 자신의 기억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하는 행복 강동원은 시도 때도 없이 코를 훌쩍거리고, 발가락을 가만 두지 못하는 버릇을 가졌다. 한 곳에 가만 있질 못하며 장난감을 좋아한다. 리모콘으로 알짜카를 조정하고 있으면 '나한테 저게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근데 지금은 장난감 대신 대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혼자 대본을 외우며, 혹은 읽으면서 상대 배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집중하고 있노라면 마치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다.

"상황이랑 상대 배우의 얼굴이랑 너무 실제 같아서 집에 카메라 없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다니깐요. 아마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철이 드는 것일까요. 노는 데서만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게으르



고 놀기 좋아하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느새 기분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됐다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젊은 배우에게 먼 훗날의 모습에 대해 질문했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를.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에게도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으면서 이 처음 받는 질문에 무척이나 가슴 설레는 눈치를 보였다.

"여러 역할이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가 될 겁니다. 뭐든 저에게 어울릴 거라고 제안을 해 온다면 정말 망설임 없이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 그리고 또 다음 역할, 다음 역할도 정말 독특하면서도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역할을 겁내하지 않는 배우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배우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찾는 훈련 요즘은 부쩍 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하루, 그 날 그 날의 느낌들을 낙서로 활자로 적어 내려가는 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은 아니겠지만 무작정 당분간은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무엇이 될지 모르는 '훈련' 을 해보고 싶단다.

강동원은 일기장에 무엇을 적으려는 것일까. 어딘가로 날아가고 싶어서 색연필로 비행기를 그리고, 입고 싶은 옷의 형태를 그려 넣고 그려진 않을까. 혹시 그 일기장 첫 장에다 자주 자신에게 묻곤 한다는 이 질문을 적어 넣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린듯 강렬한, 냉정한듯 따뜻한 눈빛

〈장길산〉의 유수영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 강렬하다. 지금껏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도시적이고 냉소적이던 분위기는 〈장길산〉에서 다소 변모한 듯 보인다.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냉정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던 ‘유수영표 카리스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라이벌의 매력 대하사극 <장길산>이 장길산의 라이벌 격인 이지용의 출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장길산의 반대 축을 이루는 이지용 역에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유수영이 투입됨으로써 극적 흥미와 긴장감이 배가된 것이다.

극중 이지용은 드라마 초반에 이미 등장한 바 있다. 장길산이 아이였을 때 봉순이를 데려간 양반집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맞닥뜨려 일전을 벌인다. 장길산은 그 때 목검을 처음 잡아보게 되고 어린 이지용의 완승으로 끝이 난다. 두 아이의 가운데에 서서 애뜻한 시선을 보내던 소녀가 이지용의 동생 이보현(정소영 분)이다. 이보현은 장길산에게 애정을 느낀다. 탐관오리였던 이지용의 아버지는 의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심에 불탄 이지용은 해주로 자원하여 활빈도 토포에 나서게 된다.

“이지용이라는 인물은 선정을 꿈꾸는 젊은 무관이지요. 그런데 해주에 와서 보니 오히려 장길산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길산을 잡아야 하고, 숙적의 관계에 놓여있긴 하지만 장길산에게 애정을 느끼고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인물입니다.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극에 빠졌다 “요즘 저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검술과 승마를 익히는데 온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사극의 말투나 의상, 세트까지도 모두 생소한 것들 뿐이라서 그것들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색함이 적다고 하니까 다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영은 사극이 처음이다. 많이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드라마에 투입되긴 했지만, 안정감 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다. 거대한 사이클을 그리는 드라마 <장길산>에서 장길산과 이지용의 영원한 숙적 관계는 극적인 긴장감뿐만 아니라 흥미 면으로 보아도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드라마는 재미를 찾아서 보려고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자체에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인기나 관심보다도 드라마 <장길산>에 재미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실제로 극중 일어나는 갈등과 인물들은 굉장히 훌륭한 플롯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길산>에서 우리는 그의 카리스마를 발견하게 됐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 냉정하고, 남성적인 매력은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관복 사이로 피겨 나온다.

글 / 백가훈_자유기고가 · 사진 / 조광희



연락 / 은지향

방송 / 107.7MHz 파워FM · 매일 오후 2시

2003년 4월 7일 첫방송을 내보낸 <이현우의 뮤직라이브>가 방송 500회를 맞았다. 어떤 디제이는 방송 5천회를 맞기도 했지만 <이현우의 뮤직라이브>로서는 그 이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아직도 이런 사연들이 온다. “뮤리가 뭐예요?” “뮤직라이프, 재밌어요.” “끝멘트 좋아요. 자, 현우를 사랑합시다!” 5천 회가 되면 이런 사연은 안 오겠지요?

“자, 우리 모두 현우를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뮤직라이브〉의 클로징 멘트는 언제나 “자연을 사랑합시다”이다. 방송 500회를 맞았으니 지금까지 500번은 얘기한 셈인데, 〈뮤직라이브〉 베스트 어록으로도 꼽히는 유명한 멘트라 해도 처음 듣는 사람은 있는 법, 어느 청취자가 보낸 사연에 모두가 즐거웠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현우 씨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 현우를 사랑합시다”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친구와 내기까지 했나? 자연을 사랑합시다. 자 현우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보니 발음기호는 똑같다.

“남들 일할 때 우린 뮤라에서 놀니다” 오후 2시 5분 전. 생방송 스튜디오에 이현우가 나타난다. TV에서 보는 모습보다 훨씬 젊어보인다. 뚱뚱하고 게으른 강아지가 그려있는 티셔츠를 입고 베이지색 베레모를 쓰고 설렁설렁 걸어온다. 거의 매일 이 복장이니 어떻게 보면 교복이다. 하지만 교복 입은 학생이라기 보다는 오후 두시부터 네시까지 학생들과 잘 놀아주는 문제 선생님 같다.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준다. 좋은 이야기나 계도성 멘트보다는 그냥 “남들 일할 때 뮤라에서 놀자”고 꼬드긴다.

쿨 & 럭셔리 오프닝 멘트 역시 정성스레 준비한 좋은 이야기는 없다. 너무 더운 날은 가야금 산조에 시조 한 수 짜악 읽어주며 “난 선비 체질이라니까” 하며 크크 웃어버린다. 청취자 역시 “그래요. 공감이 가요” 보다는 “왜 그러셨소, 차라리 읊질 말지, 내 사랑이 변하더이다”라고 답한다. 그 디제이에 그 청취자다.

첫 곡은 최신 팝송이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예전 노래는 안된다. 첫 곡은 새롭고 상큼한 곡으로, 쿨하고 럭셔리한 곡으로 엄선한다. 뮤라의 색깔이고 뮤라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쿨&럭셔리’.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 그냥 우리 스태프끼리는 〈뮤직라이브〉의 색깔을 그렇게 정했다.

곡도 쿨하게 멘트도 쿨하게. 너무 진지하지 않게 너무 튀지도

않게. 두 시간이 이현우를 딱 닮았다. 아니, 우리가 이현우를 복제했다. 게으름과 시니컬함과 자유로움, 어색함, 초절정 세련... 간간이 나오는 로고송처럼 그냥 부담없는 경쾌함으로 딱 찼다.

뉴스 훑어보기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날의 모든 뉴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현우의 코멘트가 실린다. 세상에 이런일이~ 하고 놀랄만한 해외토픽도 전하고 방금 뜬 속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환경관련 뉴스도 단골 메뉴다.

때론 흥분한 디제이의 이슬이슬 코멘트에 스태프보다 청취자가 더 불안해하지만 워낙 자체검열이 잘 되는 디제이라 큰 걱정은 없다. 매끄럽게 예상 가능한 멘트만 원한다면 뉴스를 듣지 왜 이현우의 ‘뉴스 훑어보기’를 듣겠는가. 그래, 우리는 이런 까칠함을 즐기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우가 방송 중 제일 자주 하는 말이다. 원고를 읽고 나서도 문자를 받고서도 사연을 읽고 나서도 고개 한 번 끄덕이고는 “알겠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끝이다.

사실 요즘 너도 나도 전문가 시대고 디제이 보다 청취자가 한 수 위인 세상인데 시시콜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다소 드라이한 코멘트가 차라리 안전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유의 촌철살인은 있다. 짧은 말이지만,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가끔 한 마디씩 던지는 촌철살인이 이 모든 썰렁함을 커버하고도 조금 남는다.

스타박스 쿨하고 럭셔리한 어떤 커피전문점의 이름을 따 스타들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책 ‘스타박스’를 매일 한 곡씩 읽어준다. 이은미가 고 3때 처음 가본 레스토랑에서 아직 데뷔 전인 들국화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 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 김건모가 흑인음악 제대로 하고 싶어 외국 담배만 피웠다는 이야기, 안치환이 노래운동 동아리에 있을 때 대학가요제 나간다고 했다가 선배한테 혼난 이야기 등, 가요계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다.



“남들 일할 때 우리는 뮤라에서 놀자”며 청취자들을 꼬드기는 두 주역, DJ 이현우와 PD 은지향.

쿨한 음악들 사이에 이 시간 만큼은 제대로 '구린' 노래를 틀어준다. 트렌디한 이현우지만 이 시간에서는 연륜이 느껴진다.

“나가 있어!” 황당한 사람들,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청취자 사연이 소개된다. 엄청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 청취자나 디제이나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다.

깔깔할 한참을 웃은 후 디제이가 말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노래다. 언제나 그래왔듯...

무례한 캠페인 이왕 예전 음악 틀 거면 제대로 구리게 어차피 캠페인 해야 한다면 한 번 뒤집어서 무례하게! '무례한 캠페인'이 그렇다.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반말로 무례하게 한다. 논조도 무척이나 무례하기 짝이없다.

수영복이 발전해 남자들도 원피스 수영복을 입으니 남녀 구별이 안된다. 그러니 여자선수들은 비키니를 입자거나, 고기는 왜 1인분 시키면 안되나? 1인분도 눈치 안보고 시킬 수 있게 하자. 아님 같이 먹을 애인을 소개시켜 주던지. 또는 재혼할 땐 축의금을 받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다.

이 무례한 캠페인으로 인해서 바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나.비.효.과'. 이현우가 한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는 큰 태풍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생 꿈이 크다.

“같이 드실래요?” 먹는 얘기만 나오면 잔잔한 묘라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과문이 인다. 유리상자와 함께 묘라 최고의 장수 코너 '같이 드실래요'를 진행할 때면 평소 잘 흥분하지 않던 디제이도 무척이나 수다스럽게 변한다. 음식에 대해 해박한 디제이와 게스트, 정말 재치있는 청취자들의 사연이 콩과 콩각지 같은 사이다.

첫 키스 후 뭘 먹으면 좋을까? 상큼한 그 느낌 풋사과. 잘난척하는 사람과는 뭘 먹으면 좋을까? 목이 메이는 고구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는 뭘 먹으면 좋을까? 참으로 끝이 없는 세 남자의 수다가 이어진다. 덕분에 오후 네 시로 가는 이 시간은 정말 배가 고프다.

“어라, 이것 봐라”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로 자리잡았다. 날로날로 늘어가는 이현우의 재치도 좋고 청취자가 보낸 유머에 후한 점수 별 다섯 개를 줬다가 디제이와 게스트에게 혼나고 작가들이 공개사과를 하는 것도 재밌어 한다. 사실 유머 보다는 그 유머를 소개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 고수들이 청

취자들 앞에서 새로운 유머란 없는 법. 그 가학을 즐기는 것이다.

“이건 유머가 아니라 사연이네요.”

“작가가 이걸 왜 뽑았는지 도대체 이유나 들어봅시다.”

“혹시 작가가 다른 방송사에서 온 간첩이 아닐까요?”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남 홍보기'다. 컬투와 이현우는 작가 홍보기를 같이 하다 어느샌가 매우 친해져 있었다. 컬투가 “형” 하면 이현우가 “그래, 귀여운 동생들이” 한다. 당연한 건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웃기는지.

“오늘 뭐해?” 문자 소개가 끝나고 이현우가 “자연을 사랑합시다” 하면 오늘 방송도 끝이 난다. “자, 그럼 내일 또” 하면서 든든한 이현우가 나간다.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반성할 것은 없는지 연연해하는 모습은 없다. 그냥 쿨하게 안녕~. 나머지는 쿨~한척 하는 스태프들의 몫이다.

고은경(작가) : 오늘 왜 그랬을까? 주제를 잘못 정했나?

장승이(작가) : 아까 그 사연 다른 데서도 소개된 거래요.

은지향(PD) : 오늘은 다른 날보다 문자가 조금 왔네.

쿨 & 럭셔리? 무슨 개코같은 소리...!

라디오에도 명품이 있다. <이현우의 뮤직라이브>는 그런 명품이 되길 희망한다. 세일도 안하고 유행도 안 따라가지만 오랜 시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제 500회니까 앞으로 4,500회만 더 하면 5천회다!

글/고은경<이현우의 뮤직라이브> 작가·사진/김연식



라디오의 명품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뮤직라이브> 사람들. 쿨한 DJ 이현우, 그리고 쿨한 척(!)하는 작가들과 PD.

Talking with Cool Guy

DJ 이현우

2003년 4월 7일, <뮤직라이브>의 DJ로 다시 자리를 잡은 이현우는 방송 500회를 맞아 남다른 감회를 가진다(이현우는 2002년 4월, <뮤직라이브>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77일 동안만 진행, 최단기간 DJ가 되었다).

77일 DJ 경력이 말해주듯, 그는 어떤 일 하나도 그리 오래 해 본 적이 없다. 여기저기서 DJ를 해 본 경험은 있지만 길어야 8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베짱이즘'이란 말을 즐겨 쓸 정도로 '느림'의 미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현우.

하지만 지난 해부터는 그의 행보가 꽤 바빠졌다. 연기자로, 사업가로, 또한 최근 9집을 발표한 가수로,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가 말하는 500회 돌파 소감도 꽤 이현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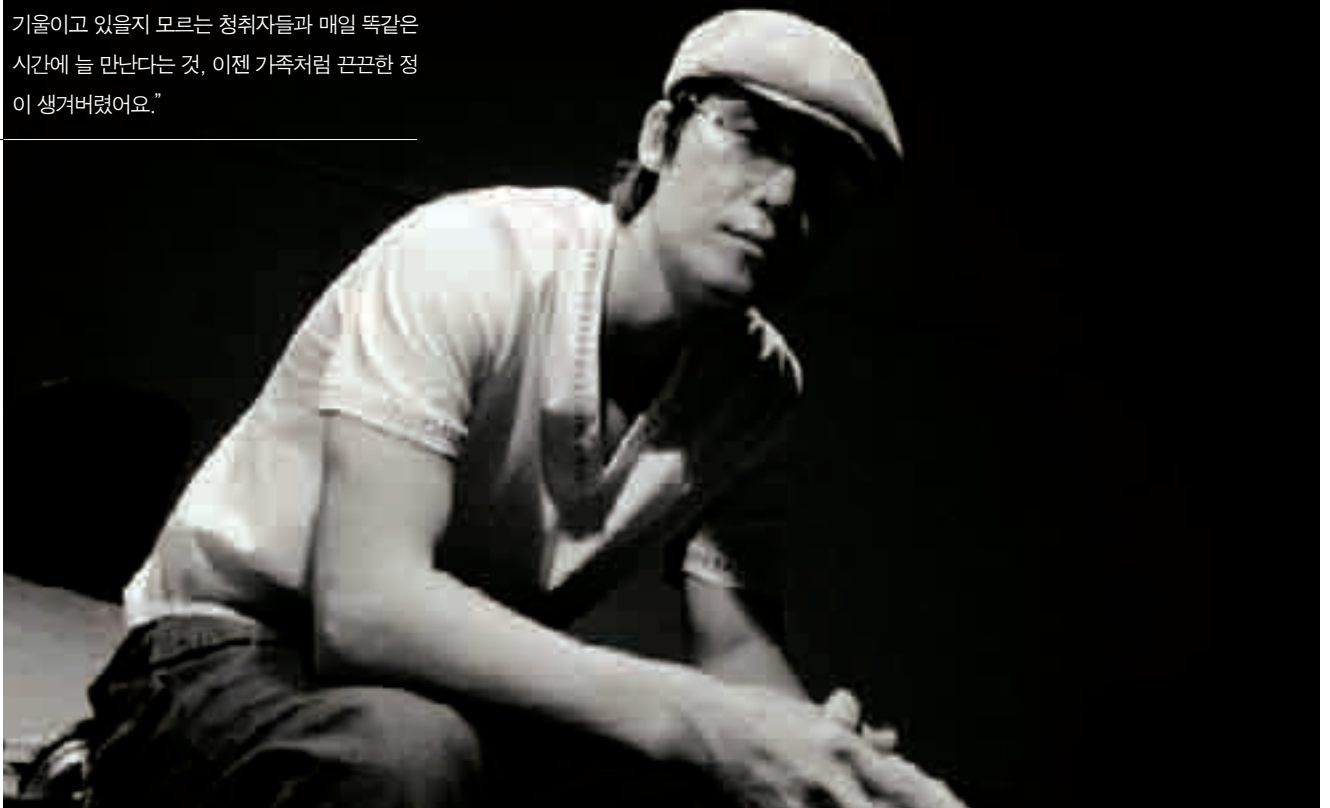
"500회나 방송한 소감이요? 글썄, 또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제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1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물론 어떤 프로그램은 5천 회를 넘긴 것도 있지만, 5천 회도 500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떤다 하실지 몰라도 제게 500회는 참 뜻깊은 '사건'입니다. 라디오 진행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을지 모르는 청취자들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늘 만난다는 것, 이전 가족처럼 끈끈한 정이 생겨버렸어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고 심지어 말투도 어눌하지만, 날로 늘어가는 청취자들은 그런 이현우가 사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자리잡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는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인데, 모두 청취자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예요.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그리고 말끝을 흐린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DJ 이현우가 가진 세상을 보는 빼박한 시선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바로 <뮤직라이브>를 같은 시간대 청취율 1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각국의 메달 따기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인기를 끈 종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비치 발리볼을 들 수 있겠다. 많은 올림픽 경기장을 평일의 조조 상영관처럼 만들었다는 화려했던 비치 발리볼 경기장은 그럭저럭 채웠다고 한다. 그 곳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진 기자들로 붐볐다고 나는 짐작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외신을 막론하고 어찌 그렇게 비치 발리볼 선수들 사진이 많은가.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섹시하게

비치 발리볼은 매력적이다. 배구와 족보는 같지만, 백사장에서, 백사장에 어울리는 유니폼을 입고 하기 때문에 더 성적(性的)이다. 선수들은 비키니 하의에 탱크탑을 입는다. 피약별에 금세 몸이 땀으로 젖는다. 리시브를 하다 넘어져 뒹굴면서 모래와 살을 섞고, 여러가지 체위를 연출하게 된다.

그래서인지(그래서. 라고 쓰고 싶다) 신문들에 비치 발리볼 경기 사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몸을 던져 리시브하는 사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둔부 사진이다.

신문사가 올림픽 취재단이라 명명해 보낸 이들은 선수들이 엉덩이 위로 손가락 사진을 내는 걸 찍는 척 하면서, 사실은 엉덩이를 찍는다. 그러면서 사진 제목은 이렇게 단다.

‘뿔 봐!’

아니, 보긴 뿔 보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찍어주니 보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런 제목은 노골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정직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날렸지만’, ‘농칠 수 없어’, ‘손가락에만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제목을 단 사진들이 무슨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인지 잘 안다.

이런 사진들은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스포츠연예 신문들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점잖은 척하는 종합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일간지 스포츠면에 자주 실리는 사진들을 잘 보라. 테니스, 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었던지는 모르지만 ‘대중성에 비해’ 이 종목 사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여자 테니스 선수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의 치마 아래 속옷이 노출돼 있다. 체조 사진을 보자. 여자 선수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편’ (이걸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두 다리가 이루는 각이 90도 이하인 경우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최소 120도는 넘고, 180도에 가까워야 신문에 실릴 자격이 주어지나 보다.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사진들의 제목이다. ‘혼신의 스트로크’, ‘젓 먹던 힘까지 다해 봤지만’ (테니스) ‘백조의 우아한 날갯짓’ (체조). 별거벗고 갓 쓴 꼴이다. 차라리 ‘웬티가 보여요’ ‘꼭 꼭 숨겨라’ 뭐 이런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왜 ‘정론지’ 들의 이런 행태는 문제 제기 안 하나, 그들이 가끔

항의하러 가는 특정 전시회야 말 그대로 특정인들만 보지만 신문은 아무나 보는데.

이렇게 스포츠와 성, 그리고 미디어의 결합은 갈수록 그 리비도를 높여간다.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베이브 루스 시절에는 야구복 하의가 거의 몸빼바지 수준이었는데, 요즘 MLB 선수들의 유니폼은 몸에 달라붙어 몸매를 그대로 드러낸다.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다. 올림픽 경기일지라도 100m 단거리 경주는 인류 평화와 화합은 커녕 한 가정의 안녕과 화합도 도모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들의 전신 경주복, 특히 아랫도리는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TV 앞에 모여 앉아 보기 민망한 것이다.

축구는 또 어떤가.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 유니폼을 기억하는가? 조각 같은 얼굴과 몸매의 이태리 남자들이 입은 유니폼은 몸에 딱 붙는 '졸졸이' 였다. 축구 선수들은 또 골 세리모니를 하며 상의를 벗어 수많은 남성 시청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여성 시청자들의 눈을 그들의 육체로 끌어 모은다. FIFA가 이런 선수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한 때 여자 프로농구에서 관중과 시청자를 끌어들이다며 섹시한 유니폼을 도입했던 것으로 볼 때, 그건 시늬임이 증명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이러다간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그랬듯이, 선수들이 옷을 벗고 경기하게 될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불가능하다고? 요즘 인기 있는 한 스포츠 브랜드의 유명한 광고 문구를 모르는가?

‘불가능,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아마 그 브랜드가 앞장서서 이런 유니폼을 내놓을지도 모르겠다. ‘신제품 출시! 엉덩이 부분을 한 가닥 끈으로 처리한 첨단 G-string 망사 유니폼. 무게 20g. 활동성 25% 증가..’

글 / 이주형_보도국 인터넷뉴스팀 기자



이 어린 거장의 돋보이는 철학적 사유

첼리스트 장한나. 10년 전, 열두 살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신동. 자기 키만한 첼로를 쥘만큼, 나이가 무색한 고뇌를 담은 얼굴로 연주하던 천재 소녀. 잊어버기만 했던 이 소녀가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데뷔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위해 고국을 방문한 그를 만났습니다.



철학도 첼리스트의 깊은 사유 개인적으로는 3년만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숙녀 티가 났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명랑함과 밝은 웃음, 똑 부러지는 말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번 인터뷰 때, 그는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지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 인문학부 2학년. 연주활동이 바빠지면서 휴학한 상태지만, 바쁜 일정을 끝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철학 공부는 예술가 이전에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음악에도 도움이 되죠. 무엇이 나의 내면에 있는지, 관객들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 느껴보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 ‘철학도 첼리스트’는 이번 독주회 프로그램을 무반주곡으로만 채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 3번과 5번, 리게티 무반주 소나타, 브리튼 무반주 모음곡 1번입니다. 무반주곡은 반주자조차 없이 철저히 홀로 무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주자의 역량을 온전히 시험대에 올려놓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무반주곡은 연주자에게 무한한 자유와 함께 책임도 지우는 것 같아요. 특히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은 가장 어렵지만 진하고 믿음이 가는 음악이지요. 바흐의 음악세계는 정말 신비하고 웅장하고 무한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첼로의 성서. 철학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음악. 피블로 카잘스, 로스트로포비치, 미샤 마이스키... 위대한 대가들의 연주가 준비한 이 곡을 연주하는 데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대가들의 연주가 왜 위대한가 생각해 보면, 그 연주에는 대가들의 개성이 있어요. 그들만의 ‘음악적 지문’이 찍혀있는 거죠. 저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 연주에 제 목소리, 제 음악적 비전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한나가 바라는 ‘좋은 연주’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나만의 속도로 내 길을 갈 것 장한나는 “요즘 욕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국 11개 도시에서 계속된, 이례적으로 빡빡한 연주 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한국에서 보다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있는 팬들의 품속에서만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더 자주 연주하고 싶어요.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에 관심이 많아요.”

장한나는 청중 앞에서 연주할 때의 느낌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복감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서 연주할 때 자유와 행복감을 느껴요. 마음이 허공을 날고 있는 것 같죠.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준비는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무대에 올라 연주하면서 나만의 세계에 푹 빠져버려요. 청중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 음악을 즐기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3년 전, ‘다른 사물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물의 본질은 없어진다’는 데카르트(DeCarte)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고 했던 장한나의 다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데뷔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것뿐인 걸요. 요즘도 ‘내 길’이 무엇인지, 연주자로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음악은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저는 꾸준히 앞으로 가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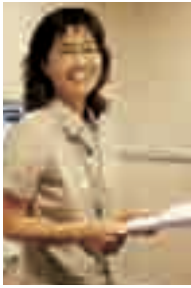
음악적 재능보다 돋보이는 것 장한나는 지금까지 음반 다섯 장을 냈습니다. 데뷔 10주년 기념 베스트 음반을 빼면 넉 장입니다. 10년 동안 ‘겨우’ 넉 장. 하지만 ‘양보다 질’을 택한 이 음반들은 세계 유수의 클래식 음반상을 휩쓸면서, ‘자신의 길과 속도’를 고민하는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한나가 참 감탄스럽고 부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의 인터뷰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가 더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딸의 얼굴을 떠올린 건, ‘평범한 엄마’인 저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한나는 세 살에 피아노를, 여섯 살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섯 살인 제 딸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 빼고는 열심히 노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요. 장한나를 만나고 ‘자극’ 받은 저는 딸에게 피아노라도 배우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주체성과 반듯한 가치관, 삶을 긍정하는 여유, 그리고 왕성한 지적 탐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장한나는 음악적인 재능 외에, 바로 제가 딸에게 바라는 이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의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글 / 김수현_보도국 교육문화팀 기자



가을을 맞는 나만의 컴필레이션

MP3는커녕 Compact Disc도 나오기 이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귀가 끌리는 곡이 있으면 바로 수첩에 메모를 한다. 차곡차곡 쌓인 메모지는 한 달에 한 번쯤 자주 가는 레코드 가게 주인 손으로 넘겨진다. 그때 <맥스 10집>이나 <명작 6>같은 컴필레이션 음반도 없을 때였다.

불법복제(?)한 가내수공 음반 부잣집 자식이 아니었던 관계로 좋아하는 곡이 담긴 음반을 일일이 구입할 수는 없었던 형편. 레코드 가게 주인 손에 넘겨진 곡목 리스트들은 한 주쯤 후, 60분짜리 스마트 테이프, 곡목이 많으면 500원 비싼 90분짜리 테이프에 녹음되어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온다.

최근 히트곡은 물론 '올디스 벳 구디스' 까지 즐비한 레코드점 주인이 음반 비닐커버를 살짝 뜯어 조심스레 턴테이블에 올린 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준 것이다. 그야말로 불법 복제인 셈, 하지만 대량유통의 위험이란 없었다. 고속복사 기능도 여의치 않던 시절, 마치 필사하듯 하나씩 찍어낸 가내수공 작품일 뿐이었다.

마음을 담은 '옵니버스' 작품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옵니버스 테이프도 많았다(그때 '옵니버스'란 표현을 썼다. 그러다가 '컴필레이션(Compilation)'이 맞는 표현이라는 한 음악평론가의 주장이 이 용어를 뒤엎었다).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한 테이프에 모아보자는 취지였는데, 내 오디오가 생기고 좀 더 좋은 음질로 - 예를 들면 녹음할 때 '찰칵' 하는 소리가 작게 들어간다가나 턴테이블 바늘을 바꿔서 튼 없이 깨끗한 음질이 구현되는 것 - 녹음하게 되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한 곡 담아주기에 이르렀다. 가끔은 마이크도 연결해서 무슨 라디오 디제이처럼 곡목소개와 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보기도 했다. 참 정성이었다.

나만의 컴필레이션은 각광받는 선물이었다. 특히 새 학년이 되었을 때 음악까나 듣는다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경쟁하듯 테이프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서로 이어폰 한 쪽씩 나눠 끼고 "이 노래는 이래서 좋아"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좋아하는 선배라도 있을라치면 밤을 새워 녹음하고 지우고 다시 녹음해서, 내다 팔아도 손색없는 한 장의 컴필레이션 테이프가 완성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내겐 이런 테이프 선물로 사랑이 찾아왔다거나 한 경험은 없었지만, 사랑이 담긴 노래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만큼 성의 있는 접근은 없었다. 돈 몇 푼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올 가을엔 다시 그 시절처럼 물론 요즘은 이런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다. CD 여러 장이 한 세트로 되어 나온 컴필레이션 음반이 무수히 많다. 원하는 말은 음악편지에 담아 획 날려버리면 그만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MP3란 강령무기는 퍼다가 링크만 하면 멋진 BGM이 되고 내 마음을 전할 음악은 도토리 몇 개로도 즉시 해결이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다. 물을 묻혀가며 음반을 소중히 닦고 예쁜 글씨로 인덱스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음악이 과연 더 어울릴까 싶어 이것저것 비교 청취하고 음반 해설지까지 훑어가며 고르던 정성이 사라졌다. 디지털과 인터넷이 음악을 듣는 행태를 바꿔놓은 것일까?



벌써 가을이다. 슬슬 한 해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하고 외로움에 허우적대지 않도록 옷깃을 바짝 여며야 한다. 이런 가을에 MP3로만 음악 듣는 옆자리 A에게, 하루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건너편 B에게, 아니면 이제 음악과 담뿍았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정보만 뒤지는 C님께 한번 정성스런 음악을 선물해보면 어떨까. 다운받지 말고 정성껏 녹음해서...

“가을이면 마음이 허전하여 꼭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당신께, 가슴에 스미는 가을 노래 일곱 곡을 추천합니다. (난 라디오 PD니까...^^)”

1. 이문세 〈가을이 오면〉

- 이 노래가 방송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이미 가을이다. 최근 리메이크 열풍 속에 노래 잘하는 서영은이 불러 청소년들도 알만한 노래. 그래도 역시 노래는 '오리지널'이 제 맛이다. 작곡가 이영훈과 콤비 시절, 청아한 목소리의 이문세가 부르던 그 노래가 그립다.

2. 김민기 〈가을 편지〉

- 가을 노래의 대표주자. 노랫말이 고은 선생님의 시구절이니 두말할 나위 없다. 최양속도 이동원도 분위기가 있지만 낮은 음색의 담담한 김민기의 목소리는 사색의 극치다.

3. 김원준 〈가을 독백〉

- 김원준 하면 〈모두 잠든 후에〉나 〈쇼〉 같은 댄스곡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멋진 보사노바 넘버도 있다. 힘 빼고 부른다고 잔잔한 보사노바가 다 어울리는 게 아닌데, 기타와 피아노, 후반부의 스캇까지 삼위일체, 잘 어울린다.

4. 한영애 〈가을 시선〉

- 투명한 가을 날 오후에 들어볼만한 곡, 설명이 필요없는 우리나라 여성 보컬의 대모 한영애의 소리와 절제된 편곡이 가을 오후, 마음을 움직인다. 한영애가 강하다면 현악 편성이 아름다운 이소라의 리메이크 버전도 괜찮다.

5. 동물원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

- 동물원만큼 가을에 어울리는 뮤지션이 있을까? 얼마 전 9집을 발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창기의 냉소적이면서도 따뜻한 가사에 심금을 울리는 김광석이 있던 초기 동물원을 가을에 놓치면 후회할까.

6. 심수봉 〈올 가을엔 사랑할거야〉

- 방송에서 직접 심수봉을 만난 적은 없지만 피아노를 치며 〈그 때 그 사람〉을 부르던 1977년의 심수봉을 아직도 기억한다. 자칫 진부해보이는 노래지만 멜로디와 가사가 구구절절 '가을'을 연발한다. 올 가을에도 솔로인 당신, 남은 시간은 많다.

7.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야〉

- 이 곡은 정규 음반에 실리지 않았다. 히트 트랙처럼 그들의 라이브 음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곡. '나는 잠도 이룰 수 없는 외로움의 병자입니다'로 마무리짓는 김종진의 목소리는 과연 사람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지만, 가을엔 모두가 병자가 되니 안심하자. 방방 뜨면 여름이지 그게 어디 가을인가.

글 / 은지향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PD



10년 만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불볕 더위로 몸 상하고, 마음 지치고, 입맛까지 떨어져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이 드디어 물러갔다. 이제 슬슬 가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 서늘한 바람이 일렁이면 자연스레 찾게 되는 '그것'이 있었으니, 누가 뭐라해도 그건 바로 원기회복을 위한 보양식 아니겠는가? <잘먹고 잘사는 법>과 함께 펼치는 가을맛이 원기회복 대작전!

여름동안 지친 심신, | | | | 먹어서 달래보자



건강음식 대백과가 추천하는 가을맛이 특선메뉴

● 여름아 안녕! 초가을 보양식, 닭고기

최고의 서민 보양음식이 닭고기다.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이 높은 반면 지방과 칼로리가 낮으며 소화가 잘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위별로 맛과 영양이 다르다는 것. 특히 날개살엔 콜라겐이 있어 피부에 좋고, 가슴살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딱딱하지 않다.

<닭가슴 & 날개살 샐러드>

재료 | 닭가슴살 200g, 오이 1개, 팽이버섯 100g, 체리 토마토 약간, 마늘 1쪽, 식초 1.5큰술, 설탕 1.5큰술, 소금 1작은술, 통깨(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1. 닭가슴살과 날개살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삶아 식힌 후 잘게 찢어 놓는다.

2. 오이는 5cm 길이로 토막낸 후 껍질을 벗겨 채낸다

3. 팽이버섯은 끝 쪽을 잘라 버리고 물에 씻은 후 물기를 뺀다.

4. 다진 마늘에 식초, 설탕, 소금, 통깨(깨소금), 참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든다.

5. 모든 재료에 4의 소스를 버무려 닭고기와 체리 토마토로 장식한다.

원기회복을 위한 맛집 Best 5

낙지와 닭의 환상적인 만남, 낙닭구이 몸에 좋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것들의 만남! 지친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힘의 원천 낙지와 여름철 즐겨먹는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이 만났으니, 먹으면 힘이 불끈! 어깨가 솟는 것은 당연지사! 매콤하고 칼칼한 맛으로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다는 편견까지 확실하게 깨다.

● 핸드다운 닭요리 전문점 031-212-2999

메뉴 | 낙닭구이, 아구닭찜 등

위치 | 경기도 수원 아주대 정문 앞

한국사람 기 살려주는, 김치찜 100여 가지가 넘는 종류, 1년 365일 쉽없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 이 김치로 원기충전 100%에 도전해보자. 비계 두둑한 돼지고기, 1년 숙성시킨 김치를 2시간 동안 푹~ 끓여 손으로 쭉~ 찢어 먹는 그 아삭함이란! 으음~ 생각만해도 군침도는 맛에 도전해 보시라.

● 한옥집 02-362-8653

메뉴 |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삼겹살 등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 로터리 근처

맛있는 보양식 발견, 단호박 치즈 해물찜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보양식의 대발견! 특히, 여성에게 좋은 영양만점 단호박 속에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낸 갖은 해물을 넣고, 고소한 치즈를 뚜껑삼아 덮었으니, 달콤함, 매콤함, 고소함의 3박자가 환상이다. 생과일로 직접 갈아 과일잔에 담아먹는 생과일 소주 한 잔 곁들이면, 기분전환은 물론 원기회복도 문제없다.

● 반저 02-742-9779

메뉴 | 단호박 치즈 해물찜, 해물철판구이, 수박소주, 사과소주 등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 늦여름 과일의 여왕, 포도

새콤달콤한 포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인다. 포도는 식욕을 돋워주고, 산성화된 체질을 중성화시키며,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특히 다이어트에 좋다. 포도로 가을 입맛 한 번 살려보자.

〈더덕튀김 포도소스〉

1. 소금에 절인 더덕을 방망이로 두들긴 다음, 찹쌀 가루에 묻혀 노릇노릇하게 튀긴다
2. 포도는 알알이 떼어서 껍질째 버터에 볶고, 으깬 다음 체에 걸러낸다.
3. 포도에 물과 설탕을 넣고 졸여서 만든 소스를 더덕튀김에 뿌린다.

● 입맛 살리고 살 안찌고 영양가 높은 갈치요리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밥맛까지 없으면 무슨 맛으로 허기를 채우지? 물 좋은 갈치로 만든 회나 구이, 조림이면 어떨까? 갈치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이다.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EPA가 많아 성장기 어린이 머리에도 좋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하는 최강의 먹거리다.

〈갈치 카레구이〉

1. 갈치를 깨끗하게 손질해 토막내고, 소금을 뿌린다.
2. 밀가루와 카레 가루를 2대 1의 비율로 섞어 갈치에 묻힌다.
3.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 더위에 지친 피부 보송보송하게 살리기, 알로에

피부 최대의 적인 자외선.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른 것이 휴가라 했던가? 화끈거리는 피부, 새로 생긴 잡티와 기미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해 지는데~. 알로에는 진정작용과 피부를 중성화시키고, 피지분비를 감소시키며 살결을 희고 곱게 만들어준다.

〈알로에 팩〉

준비물 | 알로에 생잎, 오이 1개, 달걀 1개, 밀가루와 흑설탕 약간

1. 껍질 벗긴 알로에 생잎을 믹서기에 갈아 즙을 낸다.
2. 오이도 갈아서 즙을 낸다.
3. 달걀을 깨 넣은 그릇에 알로에즙 1작은술, 오이즙 3작은술, 검정 설탕 2작은술을 넣어 달걀 흰자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저다가 마지막에 밀가루를 넣는다.
4. 얼굴 전체에 20분 가량 마사지하고, 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바다 최고의 보양식, 곰장어구이 두말하면 입 아프고, 세말하면 섭섭해지는 인기 보양식이 바로 장어구이이라 할 수 있겠다.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여 노화방지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불어 맛까지 훌륭하니 더없는 보양식 아니겠는가? 숯불에 구운 곰장어 상추쌈 입에 넣으면, 입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해진다.

● 석쇠와 돌쇠 02-885-2984

메뉴 | 곰장어 양념구이, 소금구이, 돌판볶음밥 등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사거리

맛도 왕! 크기도 왕! 왕갈비 몸이 좀 허해졌다 싶으면 누구나 손쉽게 찾는 메뉴가 육류 아닐까? 소금 양념으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 자랑하는 수원 왕갈비는 누구나 그 푸짐함과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왕갈비의 진짜 원조집에서 맛보는 왕갈비로 힘찬 가을 출발을 알려보자.

● 화춘옥 031-216-5005

메뉴 | 왕갈비, 생갈비, 물냉면 등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글 / 서지연 <잘먹고 잘사는 법> 작가





천탑천불의 전설

고이 간직한 평화로운 고장

화 순

조광조와 김삿갓의 고장 화순은 광주에서 동쪽으로 12km 쯤 떨어져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순땅은 정암 조광조와 방랑시인 김삿갓이 생을 마감한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운주사와 쌍봉사가 문화답사지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이 온천휴양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자리잡고 있는 운주사는 천탐천불의 전설을 간직한 채 의문에 싸여있는 사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 좌우의 산등성이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개가 있다' 라고 기록돼 있어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천 년의 전설을 간직한 곳 운주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 묻혀 있었으나 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된 지난 1984년부터 차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찰과 천탐천불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전설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산이 많은 영남 지방과 평야가 많은 호남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조성했다고도 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석탑과 석불들은 현재 사찰 주변의 평지와 야산 곳곳에 자연스럽게 산재해 있다.

운주사에 있는 수십 기의 석불과 석탑 가운데 대웅전 오른쪽 산등성이에 길게 누워 있는 거대한 부부좌불상이 가장 유명하다. 폭 10m, 길이 12m의 이 좌불상은 도선국사가 천탐을 세우고 나서 마지막 천불인 이 불상을 세우려는 순간 새벽닭이 우는 바람에 미처 세우지 못하고 내려 놓았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근처에는 좌불의 바위 한 쪽을 떼어서 조성했다는 머슴부처, 하늘의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칠성바위 등이 있으며 건너편 산등성이에는 운주사에서 가장 소박한 모습의 거지바위(일명 동냥치바위)탑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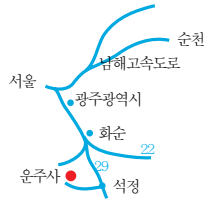
운주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은 대웅전 뒷편에 있는 공사바위다. 이 곳에 서면 대웅전 양쪽으로 쭉 뻗어나간 산등성이 곳



(아래 사진 왼쪽) 운주사 경내에 산재해 있는 석탑들
(가운데) 단아한 모습의 운주사 대웅전
(오른쪽) 투박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석불들

전라남도 화순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제2순환도로)→소태 IC(22번 국도)→너릿재터널→화순읍(29번 국도)→화림교 앞 삼거리(우회전, 818번 지방도)→운주사→불회사→운홍사터



곳에 점점이 박혀 있는 석불과 석탑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공사바위' 라는 이름은 도선국사가 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해 올라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 바위를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흐릿한 마애불은 운주사의 유일한 마애불이다.

산등성이 사이의 좁고 긴 평지에 흩어져 있는 석탑 가운데 입구 쪽에 세워진 9층석탑은 운주사의 돛대 역할을 한다. 이 곳에 석탑과 석불들이 조성될 당시 운주사(雲住寺) 일대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움직이는 배(運舟)' 의 형국이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조형물이다.

한겨울에도 푸른 빛 운주사와 함께 화순의 대표적인 사찰로 손꼽히는 쌍봉사는 화순에서 남쪽으로 35km 쯤 떨어져 있다. 신라 경문왕 때인 868년 당대의 고승 철감선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사찰 이름은 철감선사의 호인 '쌍봉' 에서 유래되었다. 본래의 사찰 건물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들은 그 이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쌍봉사 대웅전은 여느 사찰과는 달리 3층 목탑이다. 그것도 정면과 측면이 각각 1간씩인 마치 우람한 기둥처럼 생긴 목조건축물이다. 풍수지리에 의해 쌍봉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형이 '움직이는 배' 의 형상이라 배의 돛대 역할을 하는 길쭉한 목탑을 세웠다 한다. 게다가 배의 밑바닥을 파게 되면 배가 침몰한다 해서 쌍봉사에는 그 흔한 샘터 조차 하나 없다.

쌍봉사 대웅전은 그 창건 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폐사된 절터에 조선 인조 때인 1628년 3층짜리 대웅전을 짓고 그후 조선 경종 때인 17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했다.

하지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목탑은 안타깝게도 지난 1984년에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완전히 재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화재 현장을 목격한 한 신도에 의해 대웅전 안에 있던 불상들을 구한 것이다. 현재 이 불상들은 1986년 복원된 대



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도를 찾아간 날이 적당할 정도의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라면 분명 그 감동은 더욱 클 것이다.

세계적인 고인돌 천국 화순 일대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채석용 암반(감태바위)을 비롯해 고인돌과 관련된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입석(선돌 5기) 등 고인돌과 관련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입석의 크기는 평균 높이 88~140cm, 폭 52~80cm. 특히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고개인 보검재 양쪽 골짜기에는 모두 400여 기의 남방식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왼쪽) 쌍봉사 주변에서 9월에 많이 볼 수 있는 상사화(석산)
(가운데) 마치 배의 돛대 형상을 하고 있는 쌍봉사 3층 목탑(대웅전)
(오른쪽) 몸을 잃고 얼굴 부분만 남아 있는 운주사의 불상

웅전에 모셔져 있다.

쌍봉사는 한겨울에도 푸른 나뭇잎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찰 뒷편에는 울창한 대나무숲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대나무 숲길 곳곳에는 때깔 좋은 차나무 잎들이 사시사철 싱그러운 푸른 빛을 자랑하고 있다.

사찰 왼편으로 난 대나무 숲길을 따라 100m 쯤 올라가면 쌍봉사의 숨겨진 보물을 또 하나 만날 수 있다. 답사여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어하는 철감선사부도(국보 제 57호)가 바로 그것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부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천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가릉빈가, 비천상, 구름, 사자, 연꽃문양 등이 고스란히 제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철감선사부도 앞에서는 아무리 일정이 바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최소한 30분. 그 이상이라면 더욱 좋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부도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여행자라면 아마도 지루하거나 숨돌릴 틈조차 없을 것이다. 어쩌면 천년이 넘는 부도와의 교감을 확인하는 순간 작은 전율을 경

대신리에는 길이 7.3m, 너비 5m, 두께 4m, 추정무게 280톤 짜리 초대형 남방식 고인돌(일명 평매바위)이 있으며 효산리에는 무게 100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길이 5.3m짜리 고인돌이 있다. 특히 산 중턱에서는 고인돌 덮개돌 채굴지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화순 일대의 고인돌군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순군 북면에 자리잡고 있는 화순온천은 근처의 도곡온천(화순군 도곡면 소재)과 함께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온천휴양지 가운데 하나다. 20여년 전인 1982년 전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어 1995년 10월에 종합온천장으로 문을 열었다. 약알칼리성 온천으로 만성 피부병, 신장염, 위장병 등의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라듐과 유황성분이 함유된 온천탕 외에도 수영장, 기념품 판매점, 식당, 공연장, 커피숍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글과 사진 / 송일봉_여행작가

SBS 미디어넷은 케이블 채널인 SBS 골프채널, SBS 스포츠채널, SBS 드라마플러스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 사이트(<http://sbspr.sb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www.sbsgolf.com



먼싱웨어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첫방송)

-경기고 VS. 경북고

9월13일(월) 밤11시

출신 고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고교 동창들이 다시 뭉쳤다! <먼싱웨어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첫 번째 대결에서는 경기고와 경북고가 맞붙는다. 각 동창회 대표 3명이 출전하여 얼터네이트샷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1명은 작전을 지시하고 2명은 플레이를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출신 학교의 명예대결인 만큼 승부욕과 재미를 배가시켰다.



한국의 프로골퍼 이미지스wing (첫방송)

9월13일(월) 오전 6시 30분, 밤 10시 50분

한국 최정상 프로들은 어떤 스윙을 할까? 골퍼는 뭐니뭐니해도 직접 눈으로 익히는 레슨이 최고다. 9월부터 오전 6시 30분(30분간)과 밤 10시 50분(10분간)에 톱프로들의 이미지 스윙을 방송한다. 허석호, 김대섭, 박도규, 장익제, 송보배, 강욱순 등 15명의 남녀 프로골퍼들의 스윙을 천천히 보고 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SBS 스포츠채널

<http://sportsch.sbs.co.kr>



WWE 프로레슬링 - 썸머슬램

9월5일(일) 밤 9시

올 여름 전세계 레슬링 매니아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WWE 썸머슬램을 3시간 동안 방송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월드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서는 트리플 H가 골드버그, 랜디오턴, 케빈내쉬, 크리스제리코, HBK에 맞서 특기인 슬래지 해머를 사용해 우승했다. WWE 챔피언십에서는 커트앵글이 브록 레스너를 넘어뜨리고 우승했고, WWE US 타이틀전에서는 에디 게레로가 타지리, 크리스벤와, 라이노에 맞서 싸워 우승했다.



2004 NFL 시즌 개막식(생중계)

9월13일(월) 새벽 2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인 NFL은 이미 전세계의 스포츠가 되었다. NFL은 9월 개막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팀당 16게임을 치르고 정규시즌이 끝나면 플레이오프와 슈퍼볼을 치른다. 개막전에는 미국의 스타들이 모두 출연하는데 엘튼 존, 제시카 심슨, 토비 케이지, 레니 크래비츠 등의 축하공연이 있다.

한편 지난 해 우승은 템파베이 라이트닝팀이 차지했고, 플레이오프 MVP는 브래드 리차즈(템파베이 라이트닝), 2003년도에는 장세바스찬 지게어(애너하임 마이티덕스)가 거머쥐었다.

SBS 드라마플러스

www.drama.sbs.co.kr



토마토

화~금요일 오후 2시40분

김희선, 김석훈이 주연한 풋풋한 토마토 같은 드라마! 구두회사에 다니는 밝고 맑은 성격의 주인공 김희선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며 자문변호사인 김석훈을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다. 성공하려는 야망과 질투심을 숨기고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 김지영은 번번이 김희선을 가로막으며 김석훈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드라마 <사랑하고파>

화·수요일 밤 12시

제목에서 짐작하듯 <사랑하고파>는 멜로 드라마다. 약혼자가 도망가 절망에 빠진 남자, 생일이지만 외톨이인 아가씨, 여자에게 금방 싫증내는 소설가, 자기 멋대로 살고싶은 그의 애인, 주부, 고등학생, 이혼남 등 7명의 주인공이 펼치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여준다.

채널 / SBS 골프채널(케이블TV, 위성방송 502번)

연출 / 김정옥

방송 / 9월 16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SBS 골프채널의 대표적인 레슨프로그램인 <SBS 골프아카데미>가 9월부터 라이브로 생방송된다. 앞으로 시청자들은 <SBS 골프아카데미>를 생방송으로 시청하면서 바로바로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전화 문의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자신의 스윙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안방 골프 연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로 시도되는 레슨 프로그램의 라이브 방송 골프방송의 매력은 실시간 중계되는 골프대회의 라이브 중계방송이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하는 장면 장면은 놓칠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골프 레슨 프로그램 생방송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가장 훌륭한 코치의 지도를 지금 이순간 방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골프방송 시청자는 대부분이 골프를 직접 하는 사람이다. 프로이건 아마추어이건 자신의 스윙에 만족하지 않는 이상 꾸준한 연습과 레슨이 필요하다. <SBS골프아카데미>는 1999년 골프채널 개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청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시청자가 원하는 골프레슨,

라이브로 생생하게!

장철영 프로



온 대표적인 레슨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높은 인지도 만큼이나 그동안 실력과 수준이 높은 레스너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레슨 프로그램인 만큼 레스너의 수준이 프로그램의 품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엄선된 레스너들만이 출연해왔던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다.

가을을 맞아 SBS 골프채널은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한다. 골프 레슨 프로그램의 라이브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대도 크다. 수준높은 레스너의 생방송 레슨을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번 라이브 방송의 가장 큰 목적이다. 진행자도 시청자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지만 골프에 관한 프로 선생님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높은 학생이라는 점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국내 톱프로 4인방 총출동 장활영, 임경빈, 천건우, 김해천! 앞으로 <SBS 골프아카데미>를 매주 번갈아 진행할 프로들이다. 이들 4인방 레스너들의 차별된 커리큘럼 레슨을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맞춘 레슨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SBS 골프채널이 선택한 최고의 레슨프로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생방송으로 시청자 앞에 나서는 장활영 프로는 세밀한 분석가로 통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투어에서도 활동했던 경험과 미국 골프지도자 협회 마스터프로 자격증을 받은 실력으로 아마추어들이 호소하는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으로 쉽게 풀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천건우 프로는 실전에 강한 맞춤레슨의 대가로 통하는데, 미국 골든스테이트 투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만큼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통쾌하게 제시한다.

가장 최근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임경빈 프로는 논리적인 레슨의 대가로 유명하다. 미국 PGA 클래스 A멤버인 임경빈 프로는 지난 1999년에 <SBS 골프아카데미>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고, 그동안 SBS 골프채널의 <테마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며 많은 시청자 팬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의 해결사로 불리는 김해천 프로는 미국 올랜드에서 골프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미국 PGA 클래스 A멤버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골프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

네 명의 프로 모두 개성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매주 다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예나 하면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골프레슨 프로그램은 제작진과 레스너가 함께 커리큘럼을 만들기 때문에, 레스너의 교수 철학이 프로그램 제작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라이브 방송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코너는 바로 '전화 클리닉'이다. 방송을 보는 순간, 레스너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바로 전화를 하면 된다. 레슨을 받고 싶은 프로가 진행하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스윙 결점에 대해 물어보고 방송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면 자신의 스윙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미리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방송국에 보낸다면 방송을 통해서 레슨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질문이 생긴다면 방송 중 전화 문의를 하면 자세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정말 간편하고 통쾌하지 않은가? 훌륭한 레스너들에게 단 한 번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SBS 골프아카데미>를 연출하는 김정욱 PD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골프 활성화를 앞당기고 저변을 확대하는 골프계의 효자다. 골프를 배우고 싶다면 당대 최고의 레슨 프로에게 사사받을 수 있는 <SBS 골프아카데미>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올 가을, SBS골프채널은 생방송 <SBS 골프아카데미>를 통해 한 단계 높아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이브로 자신있게 선보이는 <SBS골프아카데미>! 쉽고 간결하게, 시청자가 원하는 골프레슨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글 / 조병수 SBS 미디어넷

천건우 프로



김해천 프로



임경빈 프로



www.sbs

www.sbs.co.kr 소식

<매직> e-카드 만들어 이름 날리자!

내가 직접 만든 e-카드로 드라마 홍보도 하고 이름도 날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찬스!

SBS 특별기획 <매직> 홈페이지에서는 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e-카드를 'e-카드' 메뉴에 등록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직>과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한 모든 이미지가 가능하며 가로 308픽셀, 세로 348픽셀 크기의 JPG 파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 선정된 작품은 'e-카드' 메뉴에 등록 가능하며 선정된 작품을 제작한 네티즌에게는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을 제공한다.



<파리의 연인> 시청소감 공모

술한 화제를 뿌리며 막을 내린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 홈페이지에서는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전편 20부작에 대한 시청 소감을 응모한다.

참여 방법은 드라마 홈페이지의 파리지앙 게시판에 들어간 후 '시청소감'이라는 말머리에 글제목을 달아 시청소감을 남기면 된다. 참여작 중 우수한 시청소감을 선정하여 소설 <파리의 연인>을 제공한다.



SBSi가 드리는 한가위 선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SBS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위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우선 9월 7일부터 17일까지 www.sbs.co.kr 사이트 내에 숨겨진 추석 선물을 찾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이트 내에 숨겨진 10가지의 추석 선물을 찾아 응모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SBS TV의 VOD 서비스 가운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된 추석 특집 드라마와 Plus TV 중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추석 연휴 기간(9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동안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길산> 출연진과 함께 하는 동영상 빙고 퀴즈 게임

SBS 대하드라마 <장길산> 홈페이지에서는 출연진들의 동영상을 네티즌이 직접 보고 퀴즈를 푸는 방식의 게임 이벤트를 오픈했다.

이번 이벤트는 딱딱한 텍스트로 된 기존의 퀴즈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자가 직접 퀴즈를 내는 동영상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정답을 체크하여 빙고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전원에게 장길산 계급 포인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문제를 맞추거나 빙고를 완성했을 때에는 추가로 계급 포인트를 지급한다.



<Made in HyoLee> DVD 출시 예정

SBSi(www.sbs.co.kr)는 DSP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톱가수 이효리의 모든 것을 담은 DVD <Made in HyoLee>를 9월 말경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DVD는 <SBS 인기가요>, <한밤의 TV연예> 등 이효리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영상 등을 비롯해 뮤직비디오, 댄스 클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해 DVD 2장 1세트로 발매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HyoLee's Favorite'는 이효리에 의해 이슈화되었던 패션, 건강 등 다양한 아이템을 이효리가 직접 연출을 맡아서 제작한다. 또 '댄스클립'은 지난 달 발매한 NRG의 DVD와 마찬가지로 9대의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효리의 댄스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9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고품질 HD 멀티 앵글로 촬영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DVD에서는 이효리의 히트곡인 <10 Minute>를 음장감을 강화한 전문 오디오 믹싱을 통해 다양한 버전의 5.1채널 서라운드로 제작하여 기존의 스테레오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음악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DVD 제작에는 팬클럽 운영진을 중심으로 'DVD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SBS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해 모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등 보다 알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Made in HyoLee> DVD는 신화, 보아, NRG에 이어 인기가요 스타 DVD 컬렉션 시리즈 네 번째로 제작되는 것으로, 제작진은 "스타 DVD 시리즈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인기가수의 앨범에 한정되지 않고 스타라는 이미지 상품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고 제작 의의를 밝혔다.

SBSi는 향후에도 SBS 방송물과 HDTV를 통한 고품질 영상물 제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기 가수의 편집 DVD제작 전문 프로덕션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소설 공모전 이벤트

지난 7월 19일 각 언론사와 여러 인터넷 소설 사이트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속에서 시작된 'SBSi 인터넷 소설 공모전'에서 소설을 응모한 작가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방문한 SBS 회원을 대상으로 행운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의 긴장감은 있으나 조금은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공모전에 비해 이벤트를 통해 상품도 타고 공모도 하는 일석이조의 공모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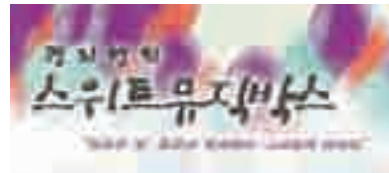
퀴즈 문항은 '2004 SBSi 인터넷 소설 공모전의 응모 장르가 아닌 것은?' 등 간단한 문제로 이루어지며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디지털웨이 MP3플레이어, 책, 음반 등 다양한 상품을 선사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공모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함께 이루어진다.



달콤한 밤, 음악과 함께 하는 그녀와의 데이트

727 회원만을 위한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공개방송



일시 / 2004년 9월 21일 저녁 7시

장소 / SBS 목동 신사옥 13층 SBS홀

■ SBS 파워FM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가 한가위를 맞아 727 회원만을 초청한 가운데 공개방송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27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길산> 마니아를 뽑아라!

727회원 중 <장길산> 'TV 다시보기' 최다 사용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대상 / 727 회원 및 <장길산> 드라마패키지 회원 중 이벤트 기간 동안

<장길산> TV 다시보기 를 가장 많이 본 회원

기간 / 2004년 9월 1일~9월 30일

상품 / <장길산> 전집



대한민국 최초 '인간 대 귀신' 주택분쟁 대소동

한가위 특선 초절정 코미디
〈귀신이 산다〉

감독 / 김상진

출연 / 차승원 · 장서희 · 장항선 · 손래영

제작 · 투자 · 배급 / 시네마서비스

공동제작 / SBS

개봉 / 9월 17일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기에 내게 일어나면 재수없고 남의 일이면 재미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 이야기'다.

여기 집없는 설움을 벗어나고자 돈 되는 일이라면 도둑질 빼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한 남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박필기! 셋방살이 삼대 째 대를 끊고 드디어 집주인 타이틀을 거머쥔 행운의 사나이.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하필 그 집이 '귀신 사는 집' 일 줄이야...

도대체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생겨먹은 귀신이 살길래... 귀신은 진짜 있던 말인가? 온통 궁금하고 알고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박필기 씨의 '내집 사수 풀스토리'!

영화 〈귀신이 산다〉에는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캐릭터 '필기'와 당사자 귀신인 '연화'가 등장한다. 먼저 〈선생 김봉두〉에서 원톱으로 대홍행을 만들어 냈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초특급 흥행배우의 무서운 끼를 보여준 바 있는 차승원은 이 영화에서 하룻밤새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내집 사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불굴의 캐릭터 '박필기'로 거듭났다.

또한 제작 이전부터 어떤 여배우가 낙점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연화' 역할은 '인어아가씨' 장서희가 맡았다. 새로 들어온 집주인 필기를 몰아내기 위해 식칼에서 소파까지 온 집안의 가구와 생활용품을 무기화하는 가공할 위협술을 보여주다가도 '식칼물고 소복입은' 자신의 모습에 본인이 더 놀라는 귀여운 귀신 연화의 캐릭터를 그만큼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배우는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게 촬영현장을 지켜본 스태프들의 이구동성.

〈귀신이 산다〉는 〈주유소 습격사건〉 이후 〈신라의 달밤〉에서 〈광복절 특사〉까지,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 흥행의 지근 반열에 오른 김상진 감독 특유의 요절복통 캐릭터와 배꼽잡는 대사들이 '인간 대 귀신'이라는 새로운 대결구도에 투영된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극도의 공포의 순간, 카타르시스처럼 터져나오는 웃음. 이것이 영화 〈귀신이 산다〉가 표방하는 웃음의 실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간 대 귀신의 주택분쟁 소동'을 다룬 '초대형 코미디' 영화 〈귀신이 산다〉는 올 추석 전국민에게 가장 즐거운 선물이 될 것이다.

SBS Television schedule

月	火	水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p>  <p>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SBS TV 특강</p> <hr/> <p>PM</p> <p>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 5:30 유희왕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백만불 미스터리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대하드라마 장길산 11:05 아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골프</p>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p>  <p>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p> <hr/> <p>PM</p> <p>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 5:30 SBS 창작 3D 애니메이션 범퍼킹 재퍼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외국인 대설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대하드라마 장길산 11:05 김용만 신동엽의 즐겨찾기</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페셜</p>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p> <hr/> <p>PM</p> <p>12:05 드라마 특선(자막해설 방송)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아짱쥬리 5:30 베리베리 뮤우뮤우</p>  <p>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해결! 돈이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드라마스페셜 형수님은 열아홉</p>  <p>11:05 뉴스추적</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석</p>

木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TV 아름다운 가게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아짱쭈리
5:30 베리베리 유우유우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드라마스페셜 형수님은 열아홉
11:0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석

金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금요 컬처클럽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금요 만화특선
5:35 물은 생명이다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이경규의 굿타임



10:45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11:15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AM

0:45 SBS 나이트라인
1:00 스포츠 와이드
1:05 시네클럽

土

AM

6:00 토요일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잘먹고 잘사는 법



11:00 SBS 가요쇼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 세상
1:10 재미있는 TV천국
1:5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시트콤 스페셜 압구정 종갓집
4:50 SBS 뉴스
5:00 학교전설
5:50 실제상황! 토요일
6:50 솔로몬의 선택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9:45 특별기획 매직



10:55 그것이 알고 싶다
11:5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AM

0:55 SBS 나이트라인
1:05 게임쇼! 즐거운 세상

日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50 SBS 시사진단
8:40 도전! 1000곡



9:40 TV 동물농장
10:50 결정! 맛 대 맞

PM

12:00 SBS 뉴스
12:10 집속! 무비월드
1:1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4:50 SBS 뉴스
5:00 웃음을 찾는 사람들
6:00 일요일이 좋다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9:45 특별기획 매직
10:55 세븐데이즈
11:45 영화특급

AM

1:35 스포츠 빅 이벤트

SBS Radio schedule

Love FM 103.5MHz 792KHz	Power FM 107.7MHz
* 월~일요일 05: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月~土	日
AM	AM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정진홍의 SBS 전망대(1부)	6:05 이명천의 광고채널 1035
7:00 아침 종합뉴스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정진홍의 SBS 전망대(2부)	7:10 생방송 러브러브 선데이
8:00 SBS 뉴스레이더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8:30 손범규의 스포츠브리핑	
8:50 주승균의 웰빙한방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PM	PM
12:00 낮 종합뉴스	12:00 낮 종합뉴스
12:2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12:1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2:00 SBS 뉴스라인	
2:20 DJ 처리와 함께 2시 탈출	2:05 DJ 처리와 함께 2시 탈출
4:05 오미희의 러브 FM	4:05 오미희의 러브FM
6:00 저녁 종합뉴스	6:00 저녁 종합뉴스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30 김성환의 서울아리랑	8:30 김성환의 서울아리랑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AM	AM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2:00 김지연의 뮤직 토포아	2:00 김지연의 뮤직 토포아
4:00 김정일의 쿵짝! 노래는 트로트	4:00 김정일의 쿵짝! 노래는 트로트
	

月~日

AM

- 5:00 송현길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이혜승의 모닝 익스프레스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윤현진의 러빙유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 4:00 허수경의 가요 풍경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장근석의 영 스트리트
- 10:00 박용하의 10!10! 클럽

AM

- 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 2:00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 3: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 뮤직



4:00 이현경의 예스터데이

한 가 위 특 선 대 작



반지의 제왕 2 - 두 개의 탑 Lord of the Rings - The Two Towers (HD방송)

감독 / 피터 잭슨 주연 / 일라이저 우드 · 이안 맥켈런 · 비고 모텐슨 촬영PD / 배숙현

영웅들과 요정들의 역사를 전하는 서사시이며 환상적이고 숭고한 세계에 대한 어른들의 동화이기도 한 <반지의 제왕 2 - 두개의 탑>은 1편보다 더욱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프로도와 샘,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동반자 골룸 일행, 아라곤과 레골라스, 김리 일행, 그리고 메리와 피핀. 이들의 이야기는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모자랄 만큼 숨가쁘게 전개되며 풍성한 추석특집물들 가운데서도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볼거리가 될 것이다.

중간대륙의 반지원정대는 사우론의 사악한 세력에 맞서 반지를 지켜냈지만 이내 빨뿔이 흩어지게 된다. 호빗족으로 절대반지에 유일한 내성을 보이는 프로도(일라이저 우드 분)는 일행과 떨어져 샘과 함께 불의 산으로 떠나지만 골룸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맞이하고, 사루만의 우루크하이 군대에게 잡혀간 메리와 피핀은 엔트 족의 영역에서 엔트 족 나무수염에게 구출된다. 한편 메리와 피핀을 구하기 위해 우루크하이 군대를 추격하던 아라곤(비고 모텐슨 분)과 레골라스(올랜도 블룸 분), 김리(존 라이스 데이비스 분)는 팡고른 숲에서 백색의 마법사로 부활한 간달프(이안 맥켈런 분)를 만나게 되고 악의 군주 사우론이 암흑세계의 두 개의 탑 오르산크와 바랏두르를 통합하여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우론은 서서히 중간대륙을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가며 로한 왕국으로 진격을 시작하고 아라곤 또한 자유 종족들을 통합하여 이에 맞설 준비를 한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선생 김봉두 (HD방송)

감독 / 장유성 주연 / 차승원 · 변희봉 · 성지루 촬영PD / 배숙현

<선생 김봉두>는 비록 딱 두 단어로 조합을 이룬 짧은 제목이지만, 애매하게 긴 영화 제목보다 훨씬 많은 스토리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반까지는 코믹을, 후반부터는 영롱한 감동의 파노라마가 이어지는 <선생 김봉두>는 차승원의 능청맞은 연기와 동상이몽의 어울리지 못하는 두 존재 사이에서 삐죽삐죽 나오는 엉뚱함의 영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잘 버무려져 형상화되었다. 더욱이 트랜드의 핵심요소인 코미디가 영화에 잘 녹아나 있어,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공적인 영화로 평가받았다.

서울의 잘나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김봉두(차승원 분). 교재 연구보다는 술을 더 좋아하고, 학부모들의 각종 돈봉투를 적극 권장 장려하던 어느 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더니 김봉두는 봉투 사건으로 인해 오지의 시골분교로 발령난다. 전교생이라고는 달랑 5명. 더구나 돈봉투는 커녕 각종 채소, 김치, 과일 등을 나눠주는 너무나 순진한 마을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에게는 불만이다. 하루빨리 서울 재입성 기회를 노리던 김봉두는 전교생을 전학보내고 학교를 폐교할 계획을 세운다. 우선 아이들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방과 후 특별과외에 매달리는 김 선생. 그러나 그의 시꺼먼 속미움과 달리 오히려 마을 주민들과 교육청은 훌륭한 김봉두 선생으로 인해 폐교 방침을 재고하게 된다. 철부지 불량 티쳐 김봉두는 과연 난관을 뚫고 서울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터미네이터 3 Terminator 3 - Rise of the Machines (HD 방송)

감독 / 조나단 모스토우 주연 / 아놀드 슈워제거 · 크리스티나 로켄 · 닉 스타일 촬영PD / 김박

미래로부터 파견된 강력한 T-1000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미래의 인류저항군 지도자 존 코너는 어머니인 사라 코너가 죽은 뒤 집과 신용카드, 핸드폰, 직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의 길을 택해 다가올 위협에 준비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고 사는 것, 그것만이 고도로 발달된 기계들의 최첨단 네트워크 스카이넷의 추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스카이넷의 목표는 미래 인간들의 지도자가 될 존 코너가 성장하기 전에 그를 암살해서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스카이넷의 치밀한 추적과 고도의 테크놀로지 앞에서 존 코너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미래에서 새로운 암살자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넷은 T-1000이 파괴되자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터미네트릭스, 일명 T-X를 개발하여 과거로 파견했다. T-X는 섹시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여성 기계로봇이다. T-X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인 파괴력과 함께 모든 기계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강력한 T-X에 맞서 존 코너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구형 터미네이터, T-800 뿐이다. 하지만 10년 전 T-800은 이미 용광로로 사라지고 난 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과연 그는 약속대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또한 그는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T-X에 맞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부가영상

- * DVD 만을 위한 박신양·김정은 인터뷰
- * DVD 만을 위한 이동건 인터뷰
- * DVD 만을 위한 오주은, 조은지 등 조연배우 인터뷰
- * <파리의 연인> 웹진 '주간 파리의 연인'
- * 명대사 명장면
- * <파리의 연인> NG 베스트
- * 종방 기념연 현장
- * 기타 많은 방송자료 및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파리의 연인> DVD 출시 예정

“그 감동, 언제든지 다시 만나세요”

SBS 프로덕션(www.sbspro.co.kr)은 9월 20일 경 드라마 <파리의 연인> DVD를 발매할 예정이다.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 등 출연 배우들의 빛나는 열연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주옥같은 명대사들을 탄생 시키며 전국민의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은 <파리의 연인>의 DVD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을 위해서다.

7장의 디스크에 20부작인 <파리의 연인> 본편을 수록하고, 부가영상을 별도의 디스크에 수록해 총 8장의 디스크로 구성될 <파리의 연인> DVD는 럭셔리한 주얼리 케이스형의 아웃박스에 DVD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일명 디지팩으로 제작해 소장가치를 더욱 높임으로써 <파리의 연인> 팬들은 물론, 일반 DVD 마니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또한 주연 및 조연 배우들의 인터뷰와 모 포털사이트의 <파리의 연인> 동호회에 게재돼 화제가 됐던 웹진, 기타 각종 방송자료 등도 부가영상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In Association With Twenty First Artists

엘튼 존 내한공연

ELTON JOHN LIVE IN SEOUL

9.17 (금) 저녁 8시
잠실 종합운동장

아시아투어 기념
패키지 앨범 출시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 SBS YESCOM PRODUCTION 제작투자 | CJ Entertainment 문의 | 2113-3480

협찬 | 브라운 스톤 TRADICLUB 하이브랜드 동아화재 PCA LIFE

공연안내

- * 일시 / 9월 17일(금) 저녁 8시
-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 * 주최 / SBS · 에스컴
- * 가격 / R석 30만원 · S석 20만원 · A석 15만원 · B석 10만원 · C석 5만원
- * 예매처 /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k.co.kr
인터파크(1544-1555), www.ticketpark.com

세계적 팝스타 엘튼 존 첫 내한공연

팝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드디어 그가 온다!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팝계의 살아있는 전설, 엘튼 존이 드디어 내한공연을 가진다. 엘튼 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성공적인 음악 아티스트 중의 한 사람이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50년대의 유행을, 비틀즈가 60년대를 풍미했다면, 70년대는 바로 엘튼 존의 시대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스태프와 밴드를 포함해 총 30여 명의 제작진이 내한하고 약 25톤의 무대 공연장비가 공수된다. 엘튼 존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연출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연을 위해 준비한 의상과 구두만 해도 방 2개를 채울 정도라니 그가 이번 한국무대에서 보여줄 카리스마를 짐작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이 연주할 피아노 2대를 가지고 투어를 다닐 정도로 음악에 대한 진지함 및 준비성 또한 대단한 아티스트이다. 이번 아시아 순회 투어는 9월 12일 홍콩에서의 2회 공연을 시작으로 대만, 한국, 중국(상해)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